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54호 【루계 제26228호】 주체107(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가 집대성된 태양조선의 대국보관으로 꾸리는데 이바지할 불타는 마음안고 봉화지도국 처장 박철웅은 많은 건설자재를 성의껏 지원하였다.

제신성 산하단위 정보통신기술원 김철익도 당의 청년전위로서의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를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갔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기 위한 사업에 앞장서온 평양시상업관리국 산하단위 로동자 최영은 조선혁명박물관을 훌륭히 꾸리는데 절실히 필요한 많은 자재를 기증하였다.

창광산호텔 로동자 강은향은 실천적모범으로 청년동맹원들을 당정책관철에로 불러일으키면서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는 길에 참된 삶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가슴뜨겁게 새겨안고 만경대구역인민위원회 산하단위 로동자 정해옥은 온 가정의 지성이 깃든 물자들을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을 지니고 남포항만건설사업소 로동자 황혁철은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불심량면으로 지원하였으며 농업성 부원 김성미도 건축공사를 돕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이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그이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13일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웨스찌.루가 보도하였다.

통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진문헌을 모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회고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 7돐에 즈음하여 17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회고모임이 진행되였다.

최수봉 제1부의장을 비롯한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일군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한 다음 정중히 인사를 올리였다.

모임에서는 최수봉 제1부의장이 발언하였다.

그는 전체 재중조선공민들과 재중동포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안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은 위인의 품격과 자질을 최상의 높이에서 완벽하게 체현하시고 혁명과 건설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재중조선공민들이 조선민족의 넋을 지켜 번함없이 애국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도록 온갖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친어버이이시였다고 그는 높이 칭송하였다.

그는 전체 재중조선공민들과 재중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지켜 나라의 통일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특출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결의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령도업적을 담은 영화문헌을 시청하였다.

한편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총련합회 산하 연변지구협회, 중남지구협회에서도 회고모임들을 진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날이 가고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온 겨레의 한마음을 담아 《장군님은 태양으로 영생하신다》의 노래소리가 온 강토에 울려퍼지는 12월의 오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전체 일군들과 재중조선인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민족의 운명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이름있는 정치가와 위인들이 많지만 우리 장군님처럼 피어린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백씨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달리는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는 순간까지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인류의 자주위업실현을 위하여 온넋을 초불처럼 장그리 불태우시며 시대와 력사앞에, 우리 민족앞에 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혁명가, 만고절세의 애국자는 없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하는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조국땅우에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펼쳐놓으시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몸이 그대로 타오르는 불길이 되시여 한평생 야전복을 입으신채 혹장과 혜기밥이라는 눈물 겨운 시대어를 로 생의 자욱자욱을 수놓으시여 인민의 행복을 안아오시고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제국주의자들의 집요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걸음마다 분쇄하시여 사회주의조국을 굳건히 지켜주심으로써 조국과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였습니다.

갈라진 민족의 고통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민족끼리의 숭고한 리념으로 반세기이상 불신과 대결로 얼어붙은 분렬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로 뭉친 온 민족의 뜨거운 통일의 열기가 삼천리강토에 휘몰아치게 하시였으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사회주의조국의 국제적지위와 권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거대한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항상 조국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사는 우리 재중조선공민들의 마음속 생각도 깊이 헤아리시여 조국에도 자주 불러주시고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며 조국이 기억하는 영생의 언덕에도 내세워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장군님의 따사로운 그 손길은 진정 저희들이 이국땅에서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일원으로 뻣뻣이 살아가게 한 힘의 원천이였고 자양분이였으며 영원한 생명의 젖줄기였습니다.

정녕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과 민족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불태우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은 온 겨레와 인류의 심장속에 영원히 간직되여있으며 강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모습과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혁명적의리로 위대한 장군님을 태양민족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여주시고 장군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조국땅우에 끊임없이 수놓아지도록 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시고 전인불발의 초인간적의지와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며 눈부신 창조대전의 세시대, 만리마시대를 안아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그 손길따라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경이적인 기적들이 다채단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 경제강국건설의 눈부신 성과들이 연해연방 이룩되고있으며 우리 조국은 일심단결의 기상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무진막강한 국력을 떨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온 누리에 찬연히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보다 뜨겁고 바다보다 깊은 숭고한 동포애와 애국애족의 결단에 의하여 대결과 전쟁소동으로 얼어붙던 삼천리 내 조국땅우에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 력사가 과감히 펼쳐지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을 목격하면서 온 겨레는 깊은 밤에도 평양의 하늘가를 삼가 우러러 격정의 눈물, 고마움의 눈물을 금치 못하고있습니다.

진정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받들고 뜻과 의지를 따르는 길에 민족의 휘황한 미래가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절감하고있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원수님을 경사롭게 모시는 해외의 성새, 방패가 되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오로지 원수님의 령도만을 따르는 주체의 해외공민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떤 준엄한 시련과 난관이 몰아쳐 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 한분밖에 모른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해나가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단계에로 승화발전시켜주신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더욱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백두산하늘아래에 사는 태양민족의 후손답게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경사보위하며 중국 동북지구에 있는 항일혁명전구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을 보다 참신하게 벌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고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에 대한 선전을 보다 심화시켜 재중동포사회에 김정은숭배열풍을 고조시켜나가며 우리 공민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모든 재중조선공민들을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워나가겠습니다.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재중조선인애국운동의 강화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107(2018)년 12월 17일 중국 심양

생산공정들의 정비보강에 계속 큰 힘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이 제시한 혁명과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인 주체97(2008)년 12월말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펴주시면서 이곳 로동계급이 대고조의 선봉에 서야 한다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력사적인 현지지도 10돐이 다가오는 지금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금속공업의 주체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철강재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하고있다.

일군들은 현지지도과업들을 조항별로 따져가며 구체적으로 총화한데 기초하여 통이 큰 작전밑에 완강한 실천력을 발휘하고있다.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힘을 넣고 력량과 수단을 총집중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련합기업소에서는 최근 현존생산공정들을 기술적으로 완비하고 새로운 기술공정들을 꾸리기 위한 사업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보산제철소의 주체철생산공정을 완성하고 설비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보산제철소 일군들과 기술자, 기능공들은 1, 2호회전로대보수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끝낸데 이어 회전로들에 산소취입공정을 꾸리고 선별직장에 자력선별기를 새로 제작설치하는 등 주체철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있다.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립적인 생산공정을 보다 튼튼히 꾸리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성과를 확대하고있다.

이미 올해에 인발강관직장의 회전가열로들에 고온풍기연소기술을 확대도입하고 우리 나라의 원료에 의거하는 봉소철, 망간철생산공정을 련이어 꾸리였다.

련합기업소의 기술집단은 또한 원료장에 파고철을 압착하는 프레스를 새로 설치하여 로장입시간과 용해시간을 철렬 단축할수 있게 하였으며 련속조피기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철강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혁신적인 일본새에 의하여 올해에만 하여도 내열성이 높은 알루미나세멘트생산공정이 수립된것을 비롯하여 70여건의 새 기술혁신안들이 생산에 도입되여 큰 은을 내고있다.

강철증산을 위한 투쟁에서 혁신의 불바람이 일어나고있다.

이곳 일군들은 생산자대중의 정신력을 최대한 발동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전기로들의 가동률을 높이고있으며 일터마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퍼지게 하고있다.

남포시당위원회의 일군들이 화선식정치사업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련합기업소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투쟁을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안고 더욱 분발해나선 련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높이 12월의 하루하루를 위훈과 혁신으로 빛내이고있다.

특파기자 주창선

과학농사에 이바지하는 연구성과를 더 많이

농업연구원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농사열풍을 일으켜 계획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농업연구원에서 과학농사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연구성과를 많이 이룩하였다.

벼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열기전달성이 강한 벼품종을 육종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들은 지난해 새로운 육종방법들을 리용하여 선발한 여러 계통을 표준품종들과 각이한 염도의 간석지논에서 특성검정 및 비료시험을 진행하였다.

연구사업을 심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선발된 여러 계통이 표준품종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소출을 낼수 있다는것이 과학적으로 확증되게 되였다.

농업나노기술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나노규소비료생산에 필요한 나노제료, 게면활성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생산하여 전국의 여러 나노규소비료생산기지에 보장해주어 농업생산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들은 농업생산에 절실히 필요한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도 훌륭히 개발하였다. 새로 개발된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은 일반박막에 비하여 당김세기와 늘임률, 로화전달성이 훨씬 높고 원가가 적으면서도 사용기간이 긴것으로 하여 도입단위들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과학자들은 어느 한 단위와의 창조적협조밑에 올해에만도 10여만㎡의 농업용나노기능성박막을 생산하여 현실에 적극 도입함으로써 알곡생산에 이바지하였다.

식물보호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벼종자에 피해를 주는 선충을 100% 구제할수 있는 새로운 소독제를 개발하고 전국의 많은 협동농장에 도입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훨씬 높일수 있게 하였다.

이들은 올해에 들어와 새롭게 연구완성한 많은 량의 농약적심제를 여러 단위에 보내주어 니코틴농약에 의한 농작물해충구제효과를 높이였다. 이와 함께 생물학적구제방법으로 농작물해충을 구제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감자연구소의 과학자들도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새로운 감자품종을 육종하여 맛좋고 영양가높은 감자를 생산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본사기자 박현

평양국제비행장 주변정리공사 결속단계

평양시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도들에서는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도시건설과 농촌건설을 힘있게 내밀어야 합니다.》

평양국제비행장주변이 나날이 변모되여가고있다.

올해에만도 순안구역의 여러 리에 현대적인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이 즐비하게 일떠서고 농장마을주변이 천지개벽되여 오가는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평양국제비행장지구개발총계획안대로 순안구역 읍지구와 태암협동농장지구를 비롯한 비행장주변의 면모를 수도의 관문답게 훌륭히 개건정리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평양시당위원회에서는 년초부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우선 건설지휘부를 능력있는 일군들로 꾸리고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운데 맞게 시안의 력량을 총동원하여 건설을 와닥닥 해제끼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에 힘을 넣었다.

시당위원회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와 해당 단위 일군들은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올해 시앞에 맡겨진 건설과제를 기한전에 무조건 끝내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는 한편 전투조직과 지휘를 제기있게 하나갔다.

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힘있게 이끌면서 세멘트와 강재, 목재를 비롯한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시공분과와 감독분과를 비롯한 여러 분과 일군들은 자재를 극력 절약하면서도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시공지도를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감독통제사업을 따라세웠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7개월 남짓한 기간에 태암리와 산양리에 107동의 소층 및 단층살림집들이 훌륭히 완공되여 뜻깊은 당창건기념일을 맞으며 근 200세대가 새집들이를 하였다.

특히 수도려객운수국과 평양가금생산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이 준 과업을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할 결사의 각오를 안고 골조공사와 외내부미장공사 등을 동시에 밀고나가 맡은 과제를 제일먼저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중앙열망사업소의 일군들은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서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켰다. 이들은 앞선 시공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공사를 립체적으로 내밀어 소층살림집과 학아소건설을 9월말까지 결속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순안구역일군들과 근로자들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모든 일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전개하여 43동에 83세대의 소층 및 단층살림집건설을 전부 끝내고 주민들을 입사시키였다.

시청년동맹위원회와 시상하수도관리국을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면서 공정별계획을 책임지고 수행하여 맡은 대상건설을 제기일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밖에도 많은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에서 준 과업을 제기일에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려 태암리와 산양리 농촌마을들의 면모를 일신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시당위원회에서는 평양국제비행장주변정리공사에서 앞선 단위들의 모범을 따라배워 12월중으로 맡은 대상건설을 끝내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펴고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시당위원회, 시인민위원회와 만경대구역, 락랑구역을 비롯한 8개 구역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 며칠안으로 남은 대상건설을 결속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 혼일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특파기자 최수복

증산의 동음높이 힘차게 전진

백송종합식료공장에서

백송종합식료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고있다.

지난 19일현재 공장에서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현물지표별로 120%이상 넘쳐 수행한 기세로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품생산을 정상화하는것과 함께 새 제품개발과 질제고에서 혁신을 일으킬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고 식료품생산을 늘이기 위한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적극 창안도입하고있다. 식료품생산에서 전국적으로 앞선 단위들의 경험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참관과 기술강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있으며 회전식롤로, 면식기를 비롯한 설비의 현대화를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있다.

일터마다에서 훨씬 높은 실적이 기록되고있다.

빵작업반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기술학습을 정상화함으로써 제품생산과 질제고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사탕작업반원들은 3대혁명소조원들과 힘을 합쳐 자동당의기를 새로 제작한것을 비롯하여 설비개조와 기술혁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생산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혁신의 불길은 과자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단위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본사기자 리호성

베아링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룡성베아링공장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본사기자 최송성 찍음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적사업방법과 작풍을 체질화하여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에서 성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령도적권위를 힘있게 과시하는 일군, 전당에 인민을 위해 멸사복무하는 혁명적당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 당은 오늘 이런 일군들을 부르고있다.

※ ※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는 인민에 대한 최상최대의 사랑이고 헌신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떠받드신 우리 인민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상으로 정히 새겨안고 인민을 위한 헌신의 길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분발하여 뚜렷한 자욱을 남겨야 할 책임적인 시기이다.

인민의 충복, 이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당풍으로 하는 우리 당이 자기의 훌륭한 전사들에게 안겨주는 가장 값높은 칭호이다.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떠나 우리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당에 대한 충실성이자 곧 인민에 대한 충실성이다.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자면 일군다운 정치사상적풍모와 실무적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군들이 수령님식, 장군님식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내세우며 언제나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인민을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은 어머니의 심정으로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따뜻이 보살펴주며 일편단심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당, 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이다.

인민보다 공정한 재판관은 없다고 늘 외우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어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시였으며 위대한 혁명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인민에게 무한히 충실하신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은 인민들속에 들어가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혁명과 건설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며 격식과 틀을 배격하고 모든 문제를 창조적으로 신속있게 풀어나가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사업방법이다.

위대한 장군님식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은 우리 일군들에게 있어서 삶과 투쟁의 빛나는 교본, 영원한 귀감이다.

우리 일군들은 언제나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심장에 새기고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에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하며 인민들이 아파하는 문제, 인민들이 요구하는 문제를 풀어주는데서 진정한 보람을 느껴야 한다.

인민을 위한 길에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어 뿌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나가는 격동의 우리 시대 일군들의 심장은 이런 고결한 인생관으로 불타야 한다.

몇해전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 일군들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데 대하여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일군을 위하여 인민이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고, 일군들자체가 인민들속에서 나온 인민의 아들딸들이라고, 그런것만큼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일군들은 자기앞에 우리 장군님께서 하늘로 삼으신 인민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언제나 인민을 받들고 존대하여야 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해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의 보람은 겉로 잘 먹고 잘사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는데 있다.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은 인민생활향상과 완전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기수가 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인민을 위한것으로 일관되여있는 우리 당정책이 철저히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이 어떻게 투쟁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자기의 어깨우에 당정책의 운명이 놓여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인민생활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자기 뼈를 깎아서라도 인민생활문제를 풀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일군,

바로 이런 일군이 경애하는 원수님과 심장의 박동을 함께 하는 일군이다.

인민들이 바라는 질좋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는 문제는 인민성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언제인가 일군들에게 인민들이 요구하는 소비품을 많이 생산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기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경공업부문에서 인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여러가지 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하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일군들의 가슴속에 모든 사업의 출발점과 목적에 대하여 깊이 새겨주시였다.

사람들의 마음속고충을 가셔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일군이 인민의 참된 충복으로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수 있다.

이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기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이러저러한 일로 정신적고충을 겪으며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들속에 떴혀있는 문제들을 제때에 찾아 풀어주어야 한다고, 비록 크지 않은것이라 해도 이런 문제를 놓치지 말고 제때에 풀어주어 모든 사람들이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혜택아래 한점의 그늘도 없이 생활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고 일깨워주시였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모두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원칙에서 결함이 있거나 과오를 저지른 사람들도 따뜻이 대해주고 적극 도와주어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는것, 설사 엄중한 과오를 범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한번 치기에 앞서 열번 만나 교양하여 당의 품에 안아주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내가 오늘 인민들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할수 있는것을 못한것은 없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하거나 행동에서 지나친것은 없었는가를 돌이켜보고 결함이 나타났을 때에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고쳐나가는것을 습성화해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이렇게 자기 사업을 매일 스스로 총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당성을 단련하고 혁명적수양을 쌓으며 인민의 충복으로 더 잘 준비해나갈것을 바라신다.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속으로,

바로 여기에 우리 일군들의 생명이 있고 존재가치가 있다.

인민의 심부름군이 인민들속에 들어가지 않고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부식의 길, 귀족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인민이 바라는 문제, 인민이 아파하는 문제를 무심히 대하거나 외면하는것보다 더한 관료주의는 없으며 인민들의 생활은 안중에 없이 제살궁리만 하는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다.

푸르싱싱한 나무를 사회주의에 비유하면 일군들은 그 나무를 가꾸는 원예사라고 말할수 있다. 지난 시기 어려 동유럽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일군들이 세도와 관료주의를 부리고 특권행세를 일삼은데 있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으로서의 본태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에 있어서 추호도 용납할수 없는 적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은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민관을 체질화, 인생관화하여 사업과 생활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의 사소한 요소도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인민의 리익, 혁명의 리익을 위해 투쟁하는 참된 지휘성원으로서의 자기의 혁명적본분에 충실하도록 이끌어주시려는 숭고한 사랑의 당부이다.

위인의 슬하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인민의 참된 충복들이 성장하기마련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심장에 새기고 인민을 위하여 만점을 지고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 인민들이 실지로 덕을 볼수 있는 일을 한가지라도 더 하기 위해 뛰고 또 뛰는 일군들,

그 고결한 헌신적복무로 하여 인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는 일군들은 그 얼마나 많던가.

위대한 당의 뜻으로 사는 일군들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인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땀을 흘리고있기에 온 나라에 창조와 기적의 열풍이 더욱 세차게 일어번지고 위대한 어머니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가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량 순

《김일성전집》을 펼치고

천리혜안의 예지가 빛발친 뜻깊은 강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총서인 《김일성전집》 제2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가 수록되여있다.

로작이 발표되던 당시로 말하면 나라가 갖 해방되고 당창건위업실현을 눈앞에 둔 때여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참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계시였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평양로농정치학교(오늘의 평안남도당학교) 학생들앞에서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한 력사적인 강의를 하신데는 가슴뜨거운 사연이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심으로 하여 지난날 력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이 시대와 력사의 중심에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해방직후 조선의 혁명가들앞에는 당을 창건하는 사업과 함께 대중을 결속하고 인민정권을 세우는 사업,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 사업 등 어렵고 복잡한 과업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그가운데서도 이 방대한 과업을 말아 수행할수 있는 민족간부가 부족한것이 제일 큰 문제였다.

해방후 건당, 건국, 전군의 3대과업을 밝히시여 새 조선건설의 리정표를 마련하시던 그때에 벌써 이 문제의 중요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34(1945)년 9월 24일 평안남도당을 찾으시였다.

자신께서 평안남도당에 나온것은 평안남도당학교를 창설하는데 필요한 교사건물이 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라고 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당청사의 부속건물을 도당학교로 쓰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도당학교의 명칭을 평양로농정치학교로 하도록 하시고 이 학교는 당일군들을 양성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당간부양성사업을 잘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번영이 있다는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위대한 수령님.

수업기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생수, 강의에서 취급할 내용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나라사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간부육성사업만은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이것은 혁명의 요구라고 간곡히 교시하시였다.

이렇게 되여 평양로농정치학교에서는 당간부양성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였다.

그러나 당간부양성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교원들의 능력도 따라서지 못하다보니 몇명의 교원들이 똑똑한 과정안도 없이 이것저것 가르쳐주는것으로 급해교있었다.

이 모든 실태를 료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단련된 우수한 항일혁명투사를 평양로농정치학교에 파견하시고 얼마후에는 바쁜 시간을 내시여 몸소 학교를 찾으시였다.

그날이 바로 10월 3일이였다.

평양로농정치학교 강의실은 유명한 빨찌산부대 정치위원의 강의를 들으려고 모여온 수많은 청강생들로 꽉 들어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날에 진행하신 강의가 《진보적민주주의에 대하여》이다.

조선이 나아갈 길은 참다운 민주주의인 진보적민주주의의 길이라는것을 밝히시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의는 시작부터 참가자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그이께서 진보적민주주의의 특징을 자주, 련합, 자유, 부강, 혁명, 평화로 명백하고 통속적으로 천명해주시자 장내에서는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의에서 인민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당면하게 해야 할 사업에 대하여서도 명백하게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 강의를 마치시자 참가자들은 일제히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며 목청껏 환호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이런 훌륭한 강의는 난생처음 받아본다.》, 《우리의 앞길을 등대처럼 밝혀주신다.》라고 하면서 우리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하지만 그들이 그때 어떻게 알수 있었겠는가.

그이께서 바로 백두산호랑이로 명성이 자자하신분, 나라의 독립을 안아오시고 짓밟혔던 인민의 존엄을 되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이시라는것을.

력사적인 개선연설이 있은 다음에야 그들은 위대한 사상리론과 출중한 인품으로 자기들을 순간에 매혹시키신분이 그토록 흠모하여마지 않던 김일성장군님이시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행하신 뜻깊은 강의, 그것은 당의 강화발전에 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수많은 잊지 못할 사연들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다.

본사기자 백 영 미

그리움속에 맞으신 첫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장군님의 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는 장군님의 영원한 전사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전사!

이 부름속에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가장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상이 비껴있다.

류달리도 첫눈이 일찍 내리면 어느해 11월에 있은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해마다 첫눈이 내리는 날은 서로 다르지만 그것을 맞을 때면 사람들은 류다른 정서를 느끼군 한다.

이날도 일군들은 송이송이 내리는 눈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을 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려갔다.

방으로 들어서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의아한 어조로 지금 눈이 내리는가고 물으시였다.

함박눈이 내린다는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시여 천천히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창밖에서는 함박눈이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한동안 창밖을 내다보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며 지금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눈속을 헤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달리실것이라고 조용히 되이시였다.

순간 일군들의 얼굴마다에는 숭엄한 기색이 어리였다.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그리도 찬눈을 많이도 맞으시며 정력적인 혁명령도의 길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가슴뜨겁게 안겨왔던것이다.

이윽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몹시 지칠것이라고 하시면서 밖으로 나오시였다. 그러시고는 찬눈을 맞으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실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를 헤아리시는듯 오래도록 서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르며 격정에 잠겨있던 일군들은 그이께서 더이상 찬눈을 맞으시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하여 날씨가 점점 차지니 이제 그만 들어가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였다.

그러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내리는 눈을 맞으며 한지에 그냥 서있느라면 눈내리는 속으로 야전차를 달리고계실 최고사령관동지의 모습이 떠오르고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로고를 덜어드리겠는가 하는 생각뿐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목이 꽉 메여올랐다.

진정 내리는 흰눈을 보시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에 넘쳐계시고 그이의 천만로고를 키여이 덜어드릴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같으신 위인이 이 세상 어디에 또 있으랴.

오늘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첫눈을 맞으시면 그날의 모습으로 고결한 충정의 자욱을 끝없이 새겨가신다.

위대한 장군님의 넘쳐올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 이 나라의 새벽문도 제일먼저 여시고 내리는 찬눈비도 남먼저 맞으시며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계시여 우리 장군님은 인민과 더불어 태양으로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강 원 남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적풍모는 오늘도 참관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고있다.
—장산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한 광 명 찍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 10돐 기념보고회가 19일에 진행되였다.

도안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하였다.

자강도당위원회 위원장 김재룡동지가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주체97(2008)년 12월 눈보라사나운 강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자강도를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 전자업무연구소, 자강도도서관, 강계고려약공장을 비롯한 강계시와 성간군, 전천군, 희천시의 여러 단위들을 찾으시여 도안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에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과 함께 계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그이의 안녕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선차적관심을 돌리시며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현지지도는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강계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시였으며 장자산혁명사적관, 고산진혁명사적관 등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고 그를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첨단돌파전의 열풍속에 도가 강위력한 기계공업기지로 전변되고 중소형발전소, 대규모발전소들의 기술개조가 실현되여 전력생산이 늘어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농산, 축산, 잠업, 경공업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국토관리, 도시경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도의 면모를 일신시키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의 유훈관철, 당정책옹위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생산과 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력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초선을 맡고있는 책임감을 간직하고 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흥주청년4호발전소, 초산청년4호발전소 등 중소형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그는 금속, 기계공업부문의 자립성, 주체성을 강화하고 시, 군들에서 지방경제를 특색있게 발전시키며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어 알곡과 누에고치생산을 늘임으로써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향상시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강계교원대학, 도예술극장, 강계샘물공장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완공기일을 앞당기며 거리와 마을, 일터를 사회주의선경으로 아름답게 꾸리고 국토관리에 계속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그는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도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들어 위대한 장군님의 념원대로 자강땅을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계급교양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요한 사업

승리의 신심드높이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그 어느때보다 계급교양사업을 심화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려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계급교양을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한시도 소홀히 할수 없는 중차대한 문제로 내세우는 우리 당의 정책은 일관합니다.》

계급의식은 사회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며 사회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자기의 계급적본분을 자각한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에 의하여 시작되고 전진하며 완성되는것이 사회주의위업이다.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것처럼 계급교양을 떠나서 인민대중의 자주적삶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하여, 혁명의 승리, 사회주의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계급교양은 한시도 늦추지 말아야 할 혁명의 중대사이다. 만일 우리가 계급교양을 한순간이라도 소홀히 하거나 중도반단하면 사람들의 계급의식이 마비되게 되며 그것은 사상정신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당하는것과 같다. 몸을 튼튼히 단련하여 면역이 강해지면 병균이 침습하여도 병에 걸리지 않는것처럼 계급교양을 심화시켜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야 우리의 혁명진지를 끊임없이 강화해나갈수 있다.

계급교양은 적들의 가증되는 반공화국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위업수행과정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원쑤들과의 누가 누구를 하는 치렬한 계급투쟁과정이다. 근로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지 않고서는 생존할수 없는것이 착취계급이며 자본주의를 혁명적폭력으로 뒤집어엎고 세상에 태여난것이 바로 사회주의이다.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이 가속화될수록, 자본주의를 매장해버리는 사회주의의 힘이 강해질수록 적들의 도전과 발악은 더욱 거세여지게 된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은 정치,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매우 교묘하고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 반동적인 사상문화로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고 중동의 주권국가들을 전복하는데서 재미를 본 적들은 우리 내부에 저들의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문화와 생활양식을 침투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적들이 노리는 목적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본주의취를 쓸게 하여 혁명진지, 계급진지에 파렬구를 내자는것이다. 이러한 책동에 대하여 각성을 높이고 투쟁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낼수 없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사상의 변색, 변질을 막고 자주적근위병의 삶을 빛내이며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혁명하는 인민이 계급적원칙, 혁명적원칙에서의 랑선과 양보는 곧 죽음이라는 철리를 항상 자각하고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결사적으로 투쟁하는데 있다. 계급교양을 강도높이 벌려 인민대중속에 우리의 사상과 위업을 해치려는 원쑤들과는 끝까지 맞서싸워야 한다는 정신을 깊이 심어줄 때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는 철옹성같이 다져지고 우리 식 사회주의는 더욱 굳건해지게 될것이다.

계급교양은 높은 계급적자존심을 지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계급의식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자기 손으로 부강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강렬한 지향과 잇닿아있다. 원쑤에 대한 증오심이 백배해질수록 자기의것을 더욱 빛내여나가려는 자각과 의지가 강해지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도 높이 발휘되게 된다.

전후 재더미우에서 복구건설의 첫삽을 박을 때 나라의 정세는 매우 복잡다단하였다. 밖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로골화되고 안에서는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에 도전해나섰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남을 쳐다보거나 주저앉은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파괴된 도시와 농촌, 공장을 일떠세워 조선사람의 본때를 다시한번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복구건설도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라는 높은 계급적판점, 기어이 우리 손으로 이 땅우에 행복의 락원을 일떠세우겠다는 민족적자존심, 이것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는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이던 원쑤들의 머리우에 철추를 내리고 위대한 천리마시대, 기창한 창조와 변혁의 시대를 열어놓은 원동력이였다.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오늘 우리는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혁명적인 총공세를 과감히 벌려나가고있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제재봉쇄를 우리의 전진발전을 가로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여기에 더욱 필사적으로 매달리고있다. 그러나 밤 한숨 더 뜨자고 혁명적원칙, 계급적원칙을 저버리고 고난과 시련이 두려워 남의 집 처마밑으로 들어설 우리 인민이 아니다.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인민의 자력갱생정신과 전인분발의 투쟁은 우리 조국땅우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눈부신 성과들을 련이어 펼쳐놓고있다. 높은 계급적자존심을 만장약한 인민이 있는한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인민생활을 령락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한사코 방해하려는 적들의 책동은 물거품으로 될것이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모든 면에서 자본주의에 비할바없는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의 승리는 계급교양을 중차대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억척같이 다져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의것이다.

모든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견결한 계급의 전위투사들로 억세게 키워나가야 할것이다.

리 강 호

김 영 남 동 지 에 게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에게 씨싸왓 캄싸리 주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외무상 리용호동지, 판계부문 일군들과 라오스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담화를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령도밑에 인재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온 긍지높은 한해

주체교육발전의 앞길을 밝힌 불멸의 지침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우리의 주체교육은 더 높이 비약하며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에로 힘차게 전진하였다.

지금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은 한없는 격정을 안고 온 한해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륜명은 교육수준에 의하여 담보되며 우리 국가의 미래는 교육사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인 교육사업에서 비약을 일으켜 우리 조국을 세계의 상상봉우에 우뚝 올려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과 원대한 구상은 주체교육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히는 불멸의 지침으로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의 앞길에 언제나 찬란히 빛발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올해신년사에서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할데 대한 전투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여 새해 정초부터 온 나라에 교육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주시였다.

련이어 올해 4월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전략적구호를 제시하시고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교원진영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교육기관들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와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갱신하기 위한 사업에 주되는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키도록 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은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방도를 밝혀준 참으로 고귀한 지침으로 되였다.

이렇듯 주체교육발전에서 리정표로 되는 불멸의 지침을 마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정력적인 령도로 교육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의 교육을 더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지난 1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교육사업발전의 전환적계기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교육혁명도 교육과학의 성과를 떠나서는 기대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도들에서 이곳을 본보기로 하여 교원대학들을 잘 꾸릴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을 위한 뚜렷한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당의 인재강국, 교육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서 사범교육기관들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밝혀주시면서 사범교육기관들에서 교수교양사업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능력있는 교원들을 많이 양성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일군들도 대학교육자들도 그 얼마나 뜨거운 격정으로 설레였던가.

그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라고 하시면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 자립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정안을 개선완성하며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사업을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켜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또한 교육조건과 환경은 인재양성의 귀중한 밑거름이라고 하시면서 대학, 학교들을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하게,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훌륭히 꾸리는것과 함께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 전인민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양교원대학에 대한 현지지도는 온 나라 교육단위들에서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에 기초한 새 교수방법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하였으며 교육지원사업이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각지 일군들과 교육자들, 근로자들이 평양교원대학을 찾아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관, 교육중시사상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며 자기 지역, 자기 단위의 교육사업을 일신시킬 결심도 새롭게 다지였고 대학이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다.

지난 9월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창립 70돐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창조형의 인재들을 키워내며 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전변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대학들을 찾으시여 주신 현지말씀들은 현시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제시하고 주체교육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불멸의 기치로 빛났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각지에서 세차게 타번졌다.

전국의 모든 교육단위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 전사회적으로 교육지원열의가 더욱 고조되였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뜻깊게 맞이하기 위한 각지 당조직과 정권기관 일군들, 교육부문 일군들의 헌신적인 투쟁속에 올해에도 교육사업에서는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보람찼던 한해를 돌이켜보는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당이 밝혀준 휘황한 진로를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갈 때 인재강국의 그날이 앞당겨진다는 확고한 신심으로 차넘치고있다.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을 기어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뜨거운 충정과 애국의 열의는 보다 훌륭한 성과에로 이어질것이다.

본사기자 공로혁

교육정책관철의 앞장에서 교육위원회 일군들

새 학년도 교과서생산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새해의 첫 전투를 시작한 교육위원회 일군들은 신심드높이 올해 당의 교육정책관철을 위한 대담한 목표들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들을 펼쳐나갔다.

참으로 가슴벅찬 날과 달이 흘렀다.

조국의 부강번영과 찬란한 래일을 앞당겨오는 성스러운 후대교육사업을 위해 온 한해를 줄기차게 이어온 이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우리 당의 인재강국건설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려는 일념이 꽉 차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여 하신 현지말씀,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 등 우리 당이 제시한 새 세기 교육혁명방침들은 교육위원회 일군들의 열의를 활화산마냥 분출시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말이 닳도록 뛰고 또 뛰여 나라의 교육을 더욱 비약시키는데 이바지하려는 이들의 높은 책임감, 애국의 열정으로 하여 온 한해 위원회에는 전투적분위기가 차넘치였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부서별로 교육사업발전을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적극 토의하고 끊임없이 보충하면서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는 사업들이 활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올해에 교육부문앞에는 대학들과 각급 학교에서 교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재교육과 강습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여 교원진영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모란봉제1중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방법을 창조하고 일반화하는 사업, 평양시의 모든 구역, 군과 함께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시, 군에서 고급중학교 졸업반학생들의 일제시험을 보장하는 사업,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에 맞게 여러 부문 기술고급중학교들을 더 내오며 여러 대학에서 수십개의 학과와 전공반을 새로 내오고 새 학년도부터 교육강령을 집행하는 사업 등 방대한 과업들이 나서고 있었다.

이뿐만아니라 고려성균관, 원산농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에 교사,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일떠세우는 사업, 중요대학들에 첨단기술제품개발 및 생산기지들을 훌륭히 꾸리며 모든 시, 군에서 본보기학교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 등 올해에 접속하거나 계속 근기있게 밀고나가야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많았다.

사업의 성과여부는 일군들의 각오와 일본새, 작전과 지휘에 달려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위원회안의 모든 일군들이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섰다.

교육사업에서 혁명을 일으키자면 자신들의 사고관점과 일본새에서부터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각오를 안고 위원회일군들이 도(직할시)들을 맡고 아래에 내려가 해당 지역의 교육사업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면서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켜나갔다. 이 과정에 각지에서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도록 하고 전사회적인 교육중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는데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나라의 교육과 당정책의 윤명이 자신들의 어깨우에 놓여있다는 비상한 각오와 높은 책임감을 안고 불같은 열정을 쏟아부으며 힘차게 달려온 이들이 한해의 사업성과를 통하여 더욱 굳게 가다듬은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당 교육정책이 가장 정당하며 그것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울 때 인재강국의 래일이 앞당겨진다는 확고한 신념이였다.

당의 뜻대로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부단히 실력을 따라세워야 한다는것을 명심하고있는 이들은 신들메를 더 바싹 조이고 새해에도 큰걸음을 대질을 결의로 가슴을 뜨겁게 불태우고있다.

본사기자

새 교수방법창조의 드세찬 불길

각지 대학들과 학교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 이후 온 나라 교육단위들에서 새 교수방법창조를 위한 경쟁열풍이 더욱 고조되였다.

대학들이 가상현실기술을 도입하여 새 교수방법들을 부단히 창조하기 위한 일기로 들끓었고 보통교육부문에서도 새 교수방법들을 탐구하고 우수한 교수방법들을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진것은 올해 교육사업성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현실과 해당 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수과정, 교수수단과 수법, 교수형태들을 적극 창조하고 구현하여야 합니다.》

새 교수방법창조에서는 후대교육의 원종장인 교원양성부문 대학들이 앞장에서 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지말씀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온 평양교원대학에서는 립체환경실기실에서 가상답사체험으로 정치사상과목교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교수방법, 가상교실에서 립체연시기구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에 대한 관찰조직과 교수지도를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것을 배워주는 교수방법, 로보트종합교육에 의한 지능계발방법 등 교육기술을 적용한 새 교수방법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김형직사범대학에서는 짧은 기간에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이 도입된 우리 식의 우수한 교수방법들과 새로운 교수수단들을 창조도입하였다. 대학에서는 학부별로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강좌별로 한건이상의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도록 함으로써 너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십건의 실리있고 우수한 교수방법과 교수수단을 창조하여 교육의 질을 높은 단계에로 비약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김철주사범대학에서도 평양교원대학의 경험을 본받아 교수방법창조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가상현실기술을 리용하여 학생들의 탐구능력을 높여주는 수십건의 우수한 새 교수방법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다기능교실의 현대적인 교육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조종할수 있는 다기능교탁과 일반교실에서도 편리하게 리용할수 있는 립체연시기구와 같은 교수수단들도 창조하였다.

평양건축종합대학에서는 학술적지도를 앞세워 한달 남짓한 기간에 모든 강좌들에서 교육학적효과성이 높은 실리있는 새 교수방법들을 련이어 창조해나갔으며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에서도 자체의 개발력량으로 짧은 기간에 수십건의 가치있는 교수방법을 창조하였다.

이뿐만아니라 각지 대학들에서도 자체의 실정에 맞는 새 교수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수많은 교수방법이 창조되였다.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들에서도 현대교육과학과 교육기술을 도입한 교수방법창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졌다.

이 사업에 앞장선 평양시에서는 시안의 모든 구역, 군에서 새 교수방법창조에 필요한 교육설비들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주는데 힘을 넣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학교들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새 교수방법창조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시적으로 수백건의 새 교수방법이 창조되였으며 전국의 학교들에 일반화할수 있는 수십건의 우수한 새 교수방법이 나오게 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더욱 고조되였고 도, 시, 군별로, 학교별로 새 교수방법창조를 위한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일었다.

교육사업에서 대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에 인재가 바다를 이루게 할데 대한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선 각지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육자들의 열의로 하여 새 교수방법창조사업은 끊임없이 계속되고있다.

본사기자 김명훈

새 세기 교육혁명수행에 이바지하는 성과들

본보기학교건설 힘있게 추진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온 나라에 본보기학교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전국각지에서 힘있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교육중시사상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전국의 도, 시, 군책임일군들은 본보기학교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그리하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백수십개의 본보기학교건설이 접속되고 수십개의 학교건설이 마감단계에서 적극 추진되고있다. 이 사업에서는 평양시, 자강도와 황해남도, 평안남도가 앞장서고있다. 이 지역들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교육강국, 인재강국건설구상을 높이 받들고 본보기학교건설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들면서 교육설비, 교구비품, 실험실습기재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감으로써 많은 학교의 건설을 접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남포시 항구구역, 수안군, 개천시, 신의주시, 위원군을 비롯한 60여개의 시, 군에서 완공된 본보기학교들에 현대적인 교육설비들과 교구비품, 실험실습기재들을 충분히 마련해주어 새 학년도 개교를 성과적으로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본보기학교건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게 된다.

새로 일떠선 첨단기술개발기지들

올해에 여러 대학에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첨단기술개발기지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당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고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회의실과 토론회실, 공동개발실, 강의실과 여러 생산구역, 체육구, 독서 및 산보구, 풍경구 등을 갖춘 첨단기술개발원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는 공사속도와 함께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기술제품종합검사실, 전시장, 실험실들과 개발실들, 국제학술토론회장, 소회의실 등을 갖춘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들을 지능형건물로 손색없이 일떠세웠다.

이밖에도 올해에 한덕수평양경공업종합대학, 리과대학,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 청진광산금속대학의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들도 훌륭히 일떠서게 되였다.

새로 일떠선 첨단기술제품개발기지들은 과학연구설비들과 과학연구력량이 집중된 첨단연구기지, 첨단기술개발 및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로서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여러 부문에 대한 새 기술보급기지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과학교육발전과 나라의 첨단산업창설에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다.

기술고급중학교들이 늘어났다

지난해 전국각지에 해당 지역의 경제지리적특성과 학생들의 개성에 따르는 교육을 여러가지 형태로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나온데 이어 올해에도 평양시와 각 도에 정보기술분야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왔다.

그리하여 현재 전국적으로 9개 분야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나와 해당한 과정안을 집행하고있다.

교육위원회와 도, 시, 군들, 해당 후원단체들에서는 기술고급중학교들이 늘어나는데 맞게 교육강령작성과 교과서, 참고서집필 및 출판, 풍금사업뿐아니라 교수교양에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원만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있게 추진함으로써 기술고급중학교들이 교육강령을 원만히 집행해나갈수 있게 하였다.

기술고급중학교들이 늘어남으로써 교육체계를 더욱 완비하고 학생들의 창조적능력과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면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다음해부터 6개 분야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새로 나오게 되며 앞으로 시, 군들에도 정보기술분야의 기술고급중학교들이 나오게 된다.

본사기자

실리있고 우월한 새 교수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본사기자 찍음

날로 고조된 전사회적인 교육지원열의 전국각지에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결정을 심장깊이 새겨안은 각지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마음에 의해 올해에 교육지원열풍이 그 어느때보다도 세차게 휘몰아쳤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적으로 교육을 중시하고 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전사회적으로 교육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부터가 교육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책임적으로 해결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전국의 도, 시(구역), 군당위원회들에서도 자기 지역의 교육기관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꾸려주기 위한 경쟁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가 진행된 이후 전국각지에서 교육조건과 환경개선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수많은 액정텔레비존과 콤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설비들, 방대한 량의 세멘트, 강재, 목재, 유리 등을 성의껏 마련하여 교육단위들에 보내주었다.

지난해와 올해에 착공한 수백개의 본보기학교건설을 하루빨리 다그쳐 끝내기 위해 해당 도, 시(구역), 군들에서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짜고들면서 련일 공사실적을 높여나갔으며 분교들까지도 빛섬유케블에 의한 국가망가입을 실현하는것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고 그 준비사업에 많은 품을 넣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각 도에 평양교원대학과 같은 현대적인 교원대학을 꾸릴데 대하여 주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 도에서 교원대학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일떠세우고 물질기술적토대를 그쯘하게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자강도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건설력량편성과 자재보장대책을 면밀히 세우면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교원대학을 새로 일떠세우고 지금 교육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있다. 이와 함께 도에서는 교원대학, 사범대학교육자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면서 대학들의 실험실습실들을 보다 훌륭히 꾸려주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왔다.

다른 도(직할시)들에서도 교원대학건설준비를 적극 다그치는 한편 이 대학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당, 정권기관 일군들을 비롯하여 온 나라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학부형이 되고 교육사업의 주인이 되여 3월과 10월 학교지원월간과 여러 계기에 교육지원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감으로써 각지에서 교육기관들의 모습이 훌륭히 변모되였다.

온 나라에 세차게 일어번지는 교육지원열풍과 더불어 우리의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더욱 굳건해지고 인재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본사기자 주경봉

교육도서인쇄공장 개건사업 적극 추진

당의 숭고한 뜻에 따라 올해에 교육도서인쇄공장개건공사가 활기를 띠고 힘있게 벌어졌다.

내각과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로 강력한 현장지휘부가 조직되고 건설력량이 무어졌다. 내각과 교육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교과서생산을 그토록 중시하는 당의 의도를 심장에 새겨안고 공사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었다.

교육도서인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생산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개건공사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해나갔다.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공사를 적극 지원하였다. 여러 과학연구기관과 대학 연구집단이 현대적인 설비들을 연구제작하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렸다.

그리하여 공장은 자재, 반제품, 완제품운반계통이 완전히 무인화되고 고속으로 인쇄되는 인쇄물에 대한 검사공정이 자동화된 현대적인 교과서생산기지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드러내게 되였다.

교육도서인쇄공장의 개건사업은 계속된다.

본사기자

학생들의 실천실기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교육을 실속있게 해나가고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본사기자 찍음

현대교육기술을 결합한 교육방법들을 창조하기 위해 서로의 지혜를 합쳐가고있다.
—평양교원대학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안고 다음해농사차비에 계속 박차를

과학적인 작전밑에 세운 다수확목표

평안남도에서

다음해농사차비로 들끓는 평안남도의 농촌들에 당정책응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한달남짓한 기간에 가을갈이계획을 끝낸 도안의 농장들에서 유기질비료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만t 더 생산하였으며 중요구간 물길가시기와 구조물공사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분발하여 농업생산에서 전변을 일으켜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농업부문 일군들은 다음해농사차비가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분발해나섰다. 이들은 올해농사과정을 통하여 리득한 귀중한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다음해 다수확목표를 과학적으로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고온과 가물, 큰물을 비롯하여 몰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모든 포전에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시, 군일군들도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점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 든든한 배심을 가지고 지대적특성에 맞게 농사대책안을 바로세우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시, 군들에서 유기질비료생산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있다.

가을갈이계획을 남먼저 끝낸 덕천시가 날마다 실적을 올리며 기세좋게 나아가고있다.

시에서는 거름을 정보당 40t씩 목표를 세우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시일군들은 다음해농사차비를 앞당겨 끝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하는데서 찾고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나갔다.

특히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에서 농사차비 월지령총화와 10일지령총화를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여 창조된 경험을 제때에 일반화하고 나타난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즉시즉시 세워나가게 하였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농장들에서는 3만여의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흙보산비료원료확보계획을 120%이상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온산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유기질비료생산전투에 적극 떨쳐나섰다.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들의 본분을 자각한 이들은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내면서 생산량을 부쩍 늘이고있다. 이들은 유기질비료를 생산리용할데 대한 당의 뜻대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발효퇴비를 만드는데 모를 박았다. 그리하여 발효퇴비원료확보와 생산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있다.

북창군에서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정보당 1t이상의 소석회를 낼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안고 짧은 기간에 50여개의 석회로를 보수하고 생산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2 000여정보의 포전에 낼 소석회를 생산하였다.

올해에 다수확을 내는데서 고온과 가뭄, 큰물피해막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실천으로 체험한 숙천, 문덕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차비의 중심고리를 물길보수에서 찾고 여기에 력량을 집중하고있다.

숙천군에서는 땅이 얼기 전에 개천-태성호물길과 정남관개지선을 비롯한 5개의 중요물길과 갑문보수를 끝낼 목표를 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군안의 농업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은 과학이고 승리이며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데 다수확의 열쇠, 비약의 지름길이 있다는 철리를 새겨안고 물길, 수문보수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일군들이 필요한 자재를 해결해오고 어려운 모퉁이들에 남먼저 어깨를 들이밀면서 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떠밀어주었다.

결과 한달동안에 개천-태성호물길과 정남관개지선, 백암지선을 비롯하여 5개의 중요물길에 대한 물길가시기와 제방보강, 장석공사를 끝냈다.

련이어 한달이상 걸린다던 해창강갑문의 10여개 수문수리보수를 20일동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문덕군에서도 물길가시기와 구조물보수에 력량을 집중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개의 구조물을 보수하였다. 또한 계획된 물길가시기를 전부 끝내고 다음해에 모든 포전에 물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았다.

대동군, 증산군에서도 물길보수에 력량을 집중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다른 시, 군에서도 계획한 흙깔이와 랭습지개량을 끝낸 기세로 거름생산과 실어나르기, 활창대와 바람막이바자확보 등 다음해농사차비를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와 함께 우량품종의 종자확보와 해염토실어나르기, 아미노산미량원소복합비료생산 등을 전투목표에 반영하고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나가고있다.

뜻깊은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려는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농사차비실적은 계속 오르고있다.

본사기자 정성일

품종선택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안악군 업곳협동농장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 물절약형농법을 비롯한 과학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영농물자를 원만히 보장하며 생산조직과 지도를 실정에 맞게 하여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고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악군 업곳협동농장의 다음해농사작전에서 주목되는것은 품종선택을 지대적특성에 맞게 하고 종자확보에 힘을 넣고있는것이다.

짤로써 우리 당을 받들어갈 불같은 각오밑에 분발해나선 일군들은 다음해에 올해보다 알곡생산량을 더 늘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그리하여 작업반들에서 우량품종들을 선택하고 큰모재배방법을 전면적에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일군들은 이것으로 만족할수 없었다. 농업부문 어느 단위에서나 다수확운동의 물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벅찬 현실은 더 높은 알곡생산목표를 향해 분발할것을 요구하고있었다.

그들은 올해농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과정에 포전별품종배치가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우선 이들은 토양의 특성에 따라 품종선택을 과학적으로 하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중간늦종의 다수확벼종자들을 기본품종으로 정하고 농사를 지었다. 지력이 높은 포전에 여러 품종의 벼종자를 심었지만 가을의 결실은 달랐다. 수확고차이가 정보당 수백kg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력이 높아도 품종배치의 과학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었다.

고려해야 할 점은 또 있었다. 지력이 보통인 포전에서는 생산량이 떨어지는 품종이 있는 반면에 수확고가 올라가는 품종도 있었다. 이런 포전이 적지 않은 조건에서 여기에 알맞는 품종을 선정하여 정보당 수백kg씩 수확고를 올린다면 그 량은 적지 않을것이였다.

어기로부터 일군들은 비료를 많이 받으면서 병전달성이 센 품종들을 선택하여 지력이 높은 포전에 배치하도록 하였다. 이런 품종들을 메마른 땅에 심으면 물질대사균형이 적지 않게 파괴되어 수확고가 떨어지기때문이였다. 지력이 보통인 포전에는 비료에 대한 요구성이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병전달성이 센 이삭무게형품종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들이 여기서 찾아낸 알곡증수에비는 2%에 달하였다.

다음으로 일군들이 중시한것은 물절약형농법을 받아들이는데 맞게 품종을 선택한것이였다.

일군들은 물보장조건이 어려운 속에서도 정보당 수확고를 높인 어느 한 작업반의 올해농사경험에 주의를 돌리게 되였다. 그 과정에 가물전달성이 높은 품종들을 선정한데 그 비결이 있다는것을 포착하였다.

이로부터 일군들은 양수기로 물을 보장할수 있는 포전을 비롯하여 물대기 힘든 논과 물관리가 어려운 논에 가물전달성이 높은 품종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이것 역시 다음해 알곡생산량을 1% 늘일수 있는 중요한 예비의 하나였다.

자기 단위 농사를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농사작전을 과학적으로 하여 알곡증산의 예비를 찾아낸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시사적이다.

본사기자 전명일

모판준비를 선행시켜

홍원군 남산협동농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벼농사는 모판준비와 모기르기, 모내기와 물관리, 비료주기와 농약치기를 비롯하여 모든 공정이 기술공정이므로 과학기술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농사차비작전부터 과학적으로 예견성있게 할 때 알곡증산의 탑모를 마련할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모판준비를 앞당겨 다수확의 돌파구를 열어놓은 홍원군 남산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이 주목된다.

농장에서는 올해 앞선 영농방법인 큰모재배방법을 전면적에 받아들이였다.

경험에 의하면 큰모재배는 모판에서 오랜 기간 모기르기를 하는 조건에서 합격징표를 갖춘 다수확모를 길러내는가 못내는가에 따라 정보당 수확고가 크게 좌우되였다.

알곡증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실한 모를 길러내는데 있다고 볼 때 모판준비를 잘하는것은 선차적인 문제로 나섰다.

이런데로부터 한영수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일군들은 땅이 얼기 전에 모판만들 준비를 끝내도록 하였다.

그럴만한 리유가 있었다.

봄에 가서 이 사업을 하자면 땅을 녹여야 하는데 박막과 나래를 씌워야 하는 등 품이 많이 들었다.

보다 중요한것은 땅이 얼기전에 모판만들 준비를 끝내면 겨울철에 땅이 얼었다녹았다 하면서 폭스밈성과 공기통과성이 좋아진다는것이였다.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일군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될 때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런 관점밑에 일군들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다음해농사차비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는 일군들의 일본새에 고무되여 농장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결과 농장에서는 모판만들 준비를 땅이 얼기 전에 전부 끝내였다.

일군들의 과학적이고 예견성있는 작전은 모판만들기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다음해농사에서도 다수확을 마련할 높은 목표밑에 사색을 거듭하면 일군들은 씩인 벼겨를 모든 모판의 차단재로 리용할것을 계획하였다.

사실 농장에서는 올해에 씩인 벼겨를 차단재로 리용함으로써 큰 덕을 보았다.

이 차단재는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우선 모판의 보온과 영양조건이 종전보다 개선되였다. 또한 모의 키가 더 커지고 잎수와 아지수도 늘어났으며 벼모마름병 발생률이 줄어들었다.

이뿐이 아니다.

차단재생산과정에 벼선충들이 제거되여 수확고가 떨어지는 현상을 막을수 있어 좋았다.

결국 농장에서는 튼튼한 모를 길러내여 알곡을 증수함으로써 맡겨진 알곡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할수 있었다.

농장원들은 차단재를 질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였다.

일군들이 모든 작업반에서 모판재료 특히 부식토를 지난해보다 더 많이 마련하는 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간것도 긍정할만 하다.

지난 시기 경험을 놓고보아도 모판재료들을 섞을 때 부식토를 많이 넣으면 모판의 지력은 물론 이른봄에 모판의 온도를 높여주어 모의 생육을 안전하게 보장할수 있었기때문이다.

다음해에 포전마다 풍요한 작황을 펼쳐놓으려는 농장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모든 작업반에서는 더 많은 부식토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결과 농장적인 모판준비에서는 눈에 띄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다수확은 모판에서부터 마련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농사차비를 과학적으로 예견성있게 해나갈 때 다음해 알곡생산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성진

실리있는 큰모씨뿌리는기계 창안제작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에서

큰모씨뿌리기에서 씨앗들의 영양면적을 정확히 보장하는것은 크고 튼튼한 모를 키워내기 위한 중요한 과학기술적문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강서구역 청산협동농장의 기계화초병들이 힘과 지혜를 합쳐 제작완성한 큰모씨뿌리는기계가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는것은 주목할만 한 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협동농장들에서 농기계의 가동률을 높이고 영농공정의 기계화를 통이 크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큰모씨뿌리는기계는 많은 우점을 가지고있다.

우선 큰모씨뿌리기의 과학기술적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한데 있다.

지난 시기 이 영농작업을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경우 아무리 숙련된 농장원이라고 해도 모판에 뿌려지는 씨앗들의 균일성을 보장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과학적인 모기르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수 없었으며 나아가서는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지장을 주었다.

그러나 공기흡입식으로 씨앗들을 빨아들이였다가 흡입작용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모판에 뿌려지 된 이 기계를 리용하면 해당한 영양면적에 꼭꼭 한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많은 종자와 로력을 절약할수 있다. 사람의 손로동으로 씨뿌리기를 할 때보다 종자가 25~30%정도나 절약된다는것이 시험과정을 통하여 증명되였다고 한다.

이 기계를 리용하면 하루에 적어도 3명의 로력을 절약할수 있다.

이 얼마나 실리적인가.

이뿐아니라 이 기계는 구조와 동작원리가 간단하여 기계화작업반이나 수리분조가 있는 단위들에서는 얼마든지 자체로 제작하여 리용할수 있다.

큰모재배방법이 대대적으로 도입되고있는 현실조건에 맞는 농기계라고 누구나 찬사를 아끼지 않는 이 농기계는 기계화작업반 한성권동무의 착상에 의하여 설계되고 그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성원들에 의하여 제작완성되였다.

그는 20여년간을 기계화작업반에서 일해오고있다. 이 나날에 10여종의 농기계를 창안제작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조하여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서 여러차례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큰모씨뿌리는기계제작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며 당의 농업정책이다. 이 사업에서도 응당 청산리의 기계화초병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농장일군들은 이처럼 한성권동무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필요한 조건을 보장해주었다.

그는 큰모씨뿌리기작업을 기계화하기 위해 사색을 깊이 하였다.

농기계분야의 많은 도서들도 연구하고 이 기계제작을 여러모로 시도하였던 다른 단위의 경험도 참고하였다.

그리하여 쓰기에도 편리하고 원가도 적게 드는 농기계를 제작하기 위한 착상을 하나하나 무르익히였다.

이렇게 완성된 이 농기계는 제45차 전국농기계전시회 및 창안자회의에 출품되여 1등으로 평가되였으며 농업부문에 널리 도입일반화해야 할 농기계들중의 하나로 선정되였다.

지금 농장일군들과 기계화초병들은 다음해농사의 씨뿌리기시기 전까지 근 100대의 큰모씨뿌리는기계를 제작하여 분조들에 2대씩 갖추어놓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안고 농사차비를 착실히 잘해나가고있다.
—재령군 신환로협동농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거름원천을 적극 찾아내여

연탄군 월룡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거름생산에서 현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농장일군들은 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거름원천을 모조리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있다. 또한 작업반별, 분조별, 개인별거름생산계획을 명백히 주고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여 농장원들의 열의를 높여주고있다.

거름생산에서는 제3, 4작업반이 앞서나가고있다.

이곳 초급일군들은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농장원들에게 알려주면서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농장원들은 거름더미자 쌀더미라고 하면서 한줌의 거름이라도 더 생산하기 위해 헌신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작업반들에서는 흙보산비료원료확보와 도시거름실어들이기를 다그치면서 구운흙생산도 적극 내밀고있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는 속에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매일 많은 거름을 생산하고있다.

다음해에도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열의밑에 떨쳐나 농사차비를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투쟁에 의하여 거름생산에서는 현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본사기자

활발히 벌어진 집중강연선전활동

얼마전 중앙과 각 도의 당선전일군, 모범강연강사, 직외강연강사들로 조직된 집중강연선전대는 평안남도의 탄전들에 나가 탄부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후방물자도 넘겨주면서 고무추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에서 중시하는 대상들에 선전선동력량과 수단을 집중시켜 새로운 비약의 봉화를 지펴올리기 위한 북소리를 세차게 울려야 합니다.》

중앙집중강연선전대는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조양탄광과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명학탄광 등을 순회하면서 탄부들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였다.

집중강연선전대는 조양탄광의 월봉갱과 2갱에 나가 강연선전활동을 활기있게 벌리였다. 명학탄광 3갱의 탄부들속에 들어간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새겨주면서 석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고무추동하였다.

평양시집중강연선전대는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순천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 2.8직동청년탄광에서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할데 대한 내용의 강연선전활동을 진행한데 이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를 부르며 탄부들의 사기를 높여주었다. 또한 11갱 막장에 들어가 석탄운반도 함께 하면서 탄부들을 불러일으키였다.

천성청년탄광에서도 집중강연선전대는 10갱과 5갱의 탄부들의 정신력을 폭발시키는 강연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렸다.

평안북도집중강연선전대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덕천탄광의 여러 갱막장에 들어가 더 많은 석탄을 캐내여 대고조전투장들에 보내주자고 호소하면서 다양한 형식의 정치사업으로 탄부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평안남도의 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서창청년탄광과 월봉탄광, 남양탄광 등을 순회하면서 증산돌격운동에 떨쳐나선 탄부들의 열의를 더욱 분출시키였다.

황해북도집중강연선전대원들은 득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득장청년탄광과 룡산탄광을 순회하면서 힘있는 강연선전활동으로 탄부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었다.

황해남도와 남포시집중강연선전대는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소아래 탄광들에서 강연선전활동을 박력있게 진행하였다. 황해남도집중강연선전대는 정치사업을 벌리는것과 함께 인조청년탄광 1갱 굴진공의 가정을 방문하여 증산돌격운동에서 기수가 되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다.

남포시집중강연선전대도 송남청년탄광 2갱의 탄부들을 대상으로 강연선전활동을 한데 이어 김진청년돌격대원들이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데서 한몫 단단히 하도록 그들의 열의를 북돋아주었다.

자강도집중강연선전대는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봉천탄광, 개천탄광, 자강도공급탄광의 탄부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들이대였다.

집중강연선전대의 힘있는 화선식정치사업은 평안남도의 탄전들에서 석탄증산의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게 하였다.

특파기자 오철훈

막장을 함께 지켜선 심정으로

서창영예탄부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서창영예탄부공장은 일 잘하는 단위, 전투력있는 단위로 소문이 났다.

종업원도 많지 않고 규모도 크지 않지만 이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체의 원료와 기술로 질좋은 각종 배관을 생산하여 탄광들에 충분히 보내주고있다. 올해에만도 년간 배관생산계획을 근 넉달이나 앞당겨 끝내여 석탄생산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로동계급은 당과 인민의 크나큰 믿음을 명심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장성강화되여온 주체혁명의 선봉부대, 나라의 맏아들답게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처음 안수길지배인이 질좋은 수지배관생산을 늘일 작전을 세울 때 우려도 없지 않았다.

종업원의 다수가 영예탄부인것으로 하여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사업이 결코 헐치 않을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기대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종업원들의 모습을 보며 지배인은 스스로 두볼, 세볼의 일감을 맡아안고 뛰고 또 뛰였다.

그러던 어느날 여러명의 오랜 종업원들이 찾아왔다.

우리야 당에서 믿고 내세워준 영예탄부들이 아닌가. 우리에게 더 많은 일감을 달라. 언제나 막장을 지켜선 심정으로 석탄증산을 위한 투쟁에 한몫을 기꺼이 바치겠다.

이것은 종업원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였다. 석탄전선에서 당을 받들어 묵묵히 한생을 바쳐온 지배인도 종업원들도 뜨거운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말없이 굳게 손을 마주잡았다.

다음날부터 공장에서는 자력갱생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올랐다.

배관생산과 동시에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다.

일군들부터 질좋은 배관생산에 필요한 설비들을 마련하기 위하여 밤이 닳도록 뛰고 또 뛰였다. 일부 설비는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들어냈다. 작업장마다에서 혈아전투가 벌어지고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기풍이 높이 발휘되였다.

자기 힘을 믿고 떨쳐나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제손으로 만들어내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나날이 흘렀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알찬 열매를 맺었다.

공장에서는 각종 선반과 사출기를 비롯한 많은 기계설비를 새롭게 마련하여 질좋은 배관생산을 늘일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았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도 동시에 벌어지는 속에 구내가 번듯하게 변모되고 생산의 동음은 높이 울려퍼졌다. 물배관, 공기배관을 비롯하여 각이한 용도와 규격의 질좋은 배관이 줄줄이 생산되여 나오게 되였다.

최근에는 앞선 생산방법을 받아들여 생산물의 질을 보다 높이고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 누구나 성과의 비결을 물을 때면 지배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군 한다.

《우리야 탄전의 주인이 아닙니까. 언제나 탄부들과 함께 막장을 지켜선 심정으로 생산물에 자기의 량심을 다 바쳐갑니다.》

길지 않은 소박한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담겨져있다.

당의 령도를 한몸바쳐 실천으로 받들어갈 공장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오늘도 서창영예탄부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질좋은 배관생산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명춘길

2019년 조중체육교류의정서 조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체육성과 중화인민공화국국가체육총국사이의 2019년 체육교류의정서가 18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조인되였다.

조인식에는 우리측에서 체육상 김일국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체육성대표단성원들,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참사가, 상대측에서 구중문 중국국가체육총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조 외교 및 국제 기구대표부 녀성들 평양교원대학 참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탄생 101돐에 즈음하여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녀성들이 19일 평양교원대학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인 대학의 교육과학전시관,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 등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독자의 편지

제가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언제나 기백에 넘쳐 생활하고있는것은 진정한 혁명동지가 되여 힘과 용기를 안겨준 보통강구역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기때문입니다.

지난 11월 김장철에 있은 일입니다. 어느날 우리 집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역인민위원회와 동의 일군들이였습니다.

그들은 수백kg이나 되는 김장배추와 무우는 물론 양념감까지 안고 찾아와 김치를 담그어주고서야 돌아서는것이였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되는바가 많았습니다. 우리 영예군인들을 위한 일을 자기 집일처럼 여기며 불심량면으로 도와나서는 그 고마움과 뜨거운 진정에 그만 눈굽이 젖어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병원에서 보양치료를 받는 기간에도 수시로 찾아와 성의껏 마련한 보약재와 영양식품을 안겨주군 하던 구역안의 여러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 병원의 의료일군들 그리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함께 관람하면서 온 하루를 즐겁게 해주던 구역당위원회일군들의 모습도 잊을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온 나라가 하나의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입니다.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지의 온넋을 쟁그리 바치겠다는것을 굳게 결의합니다.

보통강구역 대보동 11인민반 림병철

《수도시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려명거리에 자리잡은 금산포특산물상점을 찾아서

지하철도 삼흥역을 나서서 려명소학교를 지나 얼마쯤 걸느라니 낯익은 지명을 단 상점이 안겨왔다.

금산포특산물상점!

에로부터 금산포는 철의 기지 황철에 철광석을 보내주는 쇠돌산지로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다. 오늘 그 의미가 새로와졌다. 사람들의 뇌리에 맛좋고 영양가높은 젓갈가공품을 떠올리는 우리 생활의 친근한 대명사로 된것이다.

그래서 수도시민들은 려명거리에 자리잡은 금산포특산물상점이 문을 열자 누구나 기쁨을 금치 못해하였으며 서들러 상점으로 향하였다.

우리도 얼마전 이곳을 찾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위대한 장군님께 순결한 도덕의리를 다해가고있는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겠는가 하는 생각뿐입니다.》

시간으로 보아 상점이 방금 문을 열었을상싶은데 벌써 많은 손님들로 흥성이고있었다.

수도의 한끝에서 온 손님도 있었고 상점문을 여는 첫 시간에 달려왔다는 손님도 있었다.

한말짓에 와서 조개젓이며 까나리젓, 멸치젓 등을 가득 사갔지만 오늘 이렇게 또 걸음을 했다는 녀인도 있었다.

《아니 그 집에선 젓갈만 먹습니까?》

누군가 이렇게 묻는 바람에 그만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녀인은 무람없는 질문의 임자를 조금도 탓하는 기색이 없이 밝은 미소를 지었다.

《젓갈들이 어찌나 맛있는지 집에 왔던 친척들이 먹어보고는 좀 나누어달라고 청하는 바람에 한통씩 집어주었더니 순식간에 동이 나더군요.》

녀인의 말에 또다시 터지는 즐거운 웃음.

기쁨을 금치 못하는 손님들을 바라보며 상점책임자 허명숙동무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우리 상점을 찾는 손님마다 젓갈들의 맛이 좋은데다가 가격도 눅다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는지 그들은 다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지난 8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을 다녀가신 후 상점봉사자들은 개업준비를 서둘렀다. 수도시민들도 려명거리의 금산포특산물상점이 하루빨리 문을 열기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상점개업은 얼마간 늦추어졌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경제타산만 앞세우면서 젓갈품의 가격을 높이 정하면 안된다는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치신것이였다. 가격을 필수록 눅게 정할데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을 높이 받들고 해당 단위에서는 토의를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다양한 젓갈품들에 보다 눅은 가격이 정해지게 되였다.

처음 상점문을 열었을 때 찾아온 손님들은 가지가지의 맛있는 젓갈들이 많고 하나같이 먹음직스럽게 포장한것을 보고도 감탄했지만 그 가격들이 눅은데 대해 한결같이 놀라와했다고 한다.

우리의 가슴도 뜨거웠다. 자기들의 밥상에 오르는 젓갈품 하나에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다심한 사랑이 깃들어있다는것을 알면 인민들이 얼마나 목이 메일것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동안에도 상점에서는 《단도직》인 젓갈품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이였다.

동성구역에서 왔다는 한 할머니의 말이 손님들의 주목을 끌고있었다.

《우리 령감은 식성이 까다로와 끼니때마다 밥타령을 하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산포특산물상점에서 사간 풋고추건명이것을 밥상에 척 놓아주었더니 글쎄 밥 한사발을 순간에 다 비우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여 다음날에는 멸치젓을 내놓았더니 이번엔 곱배기를 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손자에도 밥상에 마주앉으면 젓갈부터 찾습니다.》

가정주부들이 자기네 집에서도 그런 광경이 벌어졌댔다고 머리를 끄덕이는데 이번에는 려명거리주민이 뒤를 달았다.

《우리 아빠트에서는 거의 모든 세대가 이 상점의 젓갈품을 사다가 김장을 하였습니다. 어느 한 집에서 금산포젓갈을 넣고 만든 김치양념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너도나도 그렇게 하였답니다.》

아무리 들어도 싫지 않은 젓갈품이야기에 귀기울이느라니 눈앞에 우렷이 어려왔다. 금산포젓갈가공공장의 제품저장고를 찾으시여 저장고안에 차곡차곡 차있는 젓갈가공품들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정말 볼만 한 멋있는 풍경이라고, 처음 건설하는 젓갈가공공장이여서 생산성이 담보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없지 않았는데 산더미같이 쌓아놓은 젓갈제품들을 보니 자부심이 생긴다고,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한술이라도 보탬을 주게 되였다고 생각하니 긍지와 보람이 차넘친다고 격정에 겨워 말씀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자애로운 영상이.

세면이 바다와 접해있고 수산자원이 풍부한것으로 해서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온 우리 민족의 젓갈문화가 로동당시대에 더 아름답게 꽃피도록 하시기 위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걸으신 길 그 얼마이고 바치신 심혈과 로고는 또 얼마였던가.

모양과 크기가 각이한 용기에 담긴 먹음직스러운 젓갈품들과 그 맛 또한 독특한 건명이 간장 등을 앞을 다투어 사들고 너나없이 좋아하며 상점문을 나서는 수도시민들의 모습을 보시면 그이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랴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울렁이였다.

우리는 상점봉사자들로부터 평양시만이 아닌 여러 지방에도 금산포특산물상점과 매대가 생겨났으며 수도의 곳곳에 금산포특산물매대가 꾸려져 인민들이 려명거리까지 오지 않고도 젓갈품을 봉사받고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였다.

날로 명성높아가는 금산포젓갈, 그 하나하나의 가공품들은 인민의 밥상에 오르는 식한 하나에도 깊은 정을 기울이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사랑을 전하며 온 나라에 사회주의바다향기를 풍겨가고있었다.

본사기자

새세대들의 고상한 풍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나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미풍이 차넘치게 하여 우리 사회를 화목하고 단합된 일심단결의 대가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얼마전 우리는 송림시 석탄동에 사는 특류영예군인 김청동무가 보내온 편지를 받게 되였다.

《제가 오늘과 같이 황철로동계급을 찾아 경제선동의 길을 이어갈수 있은데는 혁명의 꽃을 활짝 피우도록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청년대학생들의 진정이 뜨겁게 슴배여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편지에는 한 평범한 영예군인을 위해 진정을 바친 황북종합대학 공업대학 청년대학생들의 소행이 담겨져있었다.

여섯해전 특류영예군인이 되여 집으로 돌아온 김청동무는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았다.

그때 그의 나이는 19살, 군사복무시절 남달리 노래도 잘 부르고 손풍금도 잘 타 지휘관들과 구대원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그였다. 그만큼 꿈도 많았고 포부도 컸었다.

그러던 그가 졸지에 쓰러졌으니 그 괴로움을 더 말해 무엇하랴.

그때 영예군인이 병사시절의 그 정신으로 살도록 고무해주고 떠밀어준 고마운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황북종합대학 공업대학 청년대학생들이였다.

《지금도 4년전 2월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 생산실습을 나왔다가 특류영예군인처녀가 침상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며 꽃다발도 안겨주고 노래도 불러주던 대학생들의 모습을 잊을수 없습니다.

생산실습을 마치고 떠나갈 때에는 하루빨리 일어서야 한다고, 특류영예군인 김청동무는 언제나 대학생들과 함께 있을것이라고 하며 거듭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저의 집으로 오는 대학생들이 끊길줄 몰랐습니다.》

청년대학생들의 진정에 넘친 모습은 김청동무에게 영예군인이라는 부름을 다시금 새기게 하여주었다.

청년대학생들의 참된 동지적사랑과 불같은 열정에 고무되여 끝끝내 침상에서 일어나게 되였다는 이야기며 그들이 밀어주는 삼륜차를 타고 황철의 들끓는 전투장으로 경제선동의 길을 이어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주었다.

지난 청년절 아침 김청동무의 집으로는 황북종합대학 공업대학 교원 장정남동무와 여러명의 대학생이 들어섰다.

청년절을 함께 쇠고싶어 왔다고 하며 성의껏 마련해가지고온 기념품도 안겨주고 노래도 불러주는 그들의 모습은 친혈육을 방불케 했다.

김청동무는 해마다 생산실습을 나오는 청년대학생들은 바뀌여도 동지적사랑과 의리는 변함없이 흐르고있다고 하면서 편지의 마감에 이렇게 썼다.

《이런 훌륭한 청년대학생들을 키운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고마운 우리 당, 사회주의제도를 받드는 마음으로 혁명의 꽃을 더욱 활짝 피워가겠습니다.》

생산실습을 진행하는 속에서도 당의 뜻을 받들어갈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운 청년대학생들, 비록 편지는 길지 않았어도 우리 시대 청년들의 순결하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가슴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바로 이런 미더운 청년들이 조국땅 어디에나 있어 우리의 래일이 그렇듯 밝고 아름다운것이 아닌가.

본사기자 신 현 규

끝맺지 못한 편지

맹산군 은포리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이 제시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는 오늘 우리 일군들이 들고나가야 할 애국의 구호입니다.》

우리가 맹산군에 대한 취재길을 이어가고있던 어느날 은포리에서 살고있는 한 로인이 편지를 가지고 찾아왔다.

편지에는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 리당위원회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있었다.

자기 고장 일군들을 자랑하고싶어 먼길을 달려온 로인의 모습도 감동깊었지만 편지를 넘겨주며 하는 말은 더 인상적이였다.

《사실 편지를 써놓고도 부치지 못한지 한참 되었다우. 일군들이 인민을 위한 일을 계속 찾아하니 어디 편지꺼리를 맺을수 있나. 우리 군에 기자동무들이 왔다고 동네사람들이 등을 떠밀기에 오기는 했지만 정작 편지를 전하자니 아쉬운 생각이 없지 않수다.》

편지에는 먼저 마을에 새 다리가 놓여선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두해전 어느 겨울날 아침 리당위원회의 한 일군은 살얼음이 진 나무다리를 건너 학교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리당위원회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즉시 농장초급일군협의회를 열었다. 그는 방금전에 목격한 사실을 이야기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만 인민을 위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그 나무다리를 이에 들어내고 든든한 콩크리트다리를 놓읍시다.》

그의 호소는 협의회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어 그들은 다리공사에 필요한 자재확보와 기술적문제해결을 위해 곳곳으로 달려갔다. 마을에 새 다리를 일떠세우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여다니는 그들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은 인민들도 떨쳐나섰다.

이런 노력끝에 마을의 나무다리는 없어지고 번듯한 새 다리가 세워진 날 인민들은 너무 좋아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고 한다.

편지에는 이밖에도 올해 어려주민지구에 수질이 좋은 물이 흘러들고 다른 마을에도 새 다리가 건설된 이야기며 한 농장원의 마음속상처를 가셔주기 위해 뜨거운 진정을 기울인 리당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방불히 적혀있었다.

우리가 편지의 마감대목을 읽고있는데 로인이 첩첩 무릎을 쳤다.

《참, 지금 리에서는 인민들의 문화생활에 도움이 될 일을 또 하나 찾아하고있수다.》

로인의 이야기를 듣느라니 당의 뜻대로 인민을 위한 헌신적봉무의 길을 묵묵히 이어가고있는 은포리당위원회 일군들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았다.

본사편집국으로는 날마다 수많은 편지들이 오고있다. 그중에는 인민들로부터 우리 당을 다운 호칭으로 불리우는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종업원들의 생활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돌보아주는 일군들에 대한 이야기며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를 사랑과 헌신으로 이어가는 의료일군들과 인민보안원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편지를 취재길에서 받고보니 우리 사회야말로 어디에 가나 인민의 리익과 편의가 최우선, 절대시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라는 생각이 더욱 깊이 들었다.

끝맺지 못한 편지, 여기서도 일군들은 인민들이 아파하는 문제, 바라는 문제를 푸는데서 진정한 보람을 찾고 인민들은 그들을 우리라고 부르며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긍지높이 엿볼수 있는것이 아닌가.

김 송 이

서로 돕고 이끄는 우리 사회의 참모습

▷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체 인민이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하나로 굳게 뭉쳐있으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에 따라 서로 돕고 이끌면서 함께 투쟁해나가고있습니다.》

남포시 와우도구역에서 살고있는 전쟁로병 박재홍로인은 자기 가정을 친혈육의 정으로 따뜻이 돌보아주고있는 남포사범대학 교직원, 학생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여왔다.

교원 김현주동무를 비롯한 남포사범대학 환경과학부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은 자기 학부의 한 학생이 부모를 잃고 전쟁로병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들은 그 학생을 학부에서 전적으로 맡아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그의 학습과 생활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였다.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에게 친형제의 정을 부어주며 명절과 기념일은 물론 자주 찾아가 전쟁로병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쁘게 해주었다.

함흥시 회상구역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유성호동무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여왔다.

《제가 회상제1중학교 교원 한미란선생님과 인연을 맺게 된것은 몇해전 어느 한 병원 입원실에서였습니다. 그날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저에 대하여 알게 된 그는 제가 있는 입원실로 찾아와 건강상태며 생활형편 등을 묻고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부터 그는 매일이다싶이 병원으로 찾아와 간호도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제가 신심을 잃지 않고 병치료에 전념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평천구역 해운2동에서 사는 허룡길로인도 자기 가정에 혈육의 정을 기울이고있는 고마운 사람들의 소행을 담은 편지를 보내여왔다.

허룡길로인은 전쟁로병이고 인민군대후방가족이다.

평천구역 미래소학교 교원인 홍순철, 리은주동무는 전쟁로병들과 인민군대후방가족들의 생활을 잘 도와주는것은 공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하면서 그의 가정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하였다.

자기가 담임한 학급학생들과 함께 그의 집을 찾아 춤과 노래로 로병을 기쁘게 해주며 그 계기를 통하여 학생들이 전쟁로병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정신세계를 따라배우도록 교양하였다.

각지 독자들이 보내온 편지에는 이밖에도 한 전쟁로병의 친딸이 되여 그의 건강은 물론 생활의 구석구석까지도 극진히 보살펴주고있는 김만유병원 일반내과 연구사 김화숙동무와 자기들의 려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과 그의 가정을 잘 돌보아주고있는 함주군 지석리당위원회 일군들의 소행도 담겨져있다.

독자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친형제가 되여 서로 돕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면서 고마운 이 제도를 위해 적은 힘이나마 바쳐갈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삼지연군건설에 뜨거운 지성을 바쳐가고있다.
—대동강구역 문수3동 백옥녀동무의 가정에서— 정철홍 찍음

존경받는 리발사

선천군에는 사람들이 누구나 존경하는 한 녀인이 있다.

선천군편의봉사관리소 어린이리발소 최혜숙동무이다.

처녀시절 처음으로 리발가위를 손에 든 때로부터 어느덧 40여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이들에게 바치는 그의 진정은 변함이 없다. 그는 아이들의 기호와 각이한 머리형태에 맞게 리발을 하기 위하여 기술기능수준을 끊임없이 높이였으며 그 나날 그가 키운 고급기능공들만 하여도 수십명이나 된다.

어느날 저녁 작업장을 지두던 그는 한 어린이가 문밖에서 서성거리는것을 보게 되였다. 머리를 깎으러 온것이였다. 최혜숙동무는 리발도구를 다시 펼쳐놓고 그를 불렀다. 아이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으며 리발을 해주고는 어두운 밤길에 아이가 길이라도 잃을세라 집에까지 데려다준 최혜숙동무.

이렇게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아이들을 반겨맞아주고 진정을 바치는 최혜숙동무를 아이들은 누구나 따르고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 그와 인연을 맺은 아이들이 어엿한 어른이 되였지만 오늘도 자주 리발소를 찾아와 자기들의 유년시절을 추억하고있다고 한다.

직업에 대한 애착을 안고 최혜숙동무는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도 적극 찾아하고있다.

군인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을 찾아가 이동봉사도 해주고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최혜숙동무를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들은 우리 리발사라고 정답게 부르며 존경하고있다.

송 철

한시도 늦출수 없고 한순간도 소홀히 할수 없는것이 반제계급교양이다

지나온 한해를 돌이켜보며 다시금 새기는 철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념원과 지향을 실현하는 길은 사회주의길밖에 없습니다.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락원이라면 자본주의는 인민대중의 무덤입니다.》

이해가 저물어가고있다.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을 이룬 이 땅에서는 올해에도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소행이 꽃펴났던가.

새해 첫날 아침 정성군 음60인민반에서 사는 영예군인 박설옥동무는 자기에게 온 소포를 받게 되였다.

그것을 풀어본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었다.

갖가지 보약재를 정성담아 포장하여 보내준 고마운 사람은 모란봉구역 홍부동 20인민반에서 사는 백은하동무였다.

박설옥동무가 그 처녀를 처음 알게 된것은 중앙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평양에 갔던 몇해전이였다.

그날 박설옥동무가 병원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았을 때 백은하동무는 그가 영예군인이라는것을 알고 병원까지 불편없이 가도록 도와주었고 필요한 입원수속도 도맡아 해주었다.

이렇게 영예군인과 인연을 맺은 백은하동무는 그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기간 입맛을 잃을세라 구미에 맞는 음식도 제손으로 만들어 가져다주었고 보약재도 품들어 구해주면서 그의 건강이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였다.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만지는 그의 진정은 박설옥동무가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변함없이 이어지였다.

백은하동무는 전화로 그의 건강과 생활형편을 수시로 알아보면서 인편이나 소포로 병치료에 좋은 보약재들을 자주 보내주어 영예군인이 혁명의 꽃을 변함없이 피워가도록 적극 도와주었다.

따뜻한 정 넘쳐나는 이 땅에서는 이렇듯 올해의 시작부터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까지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진심으로 도와주고 뜻밖의 정황속에서 자기의 한목숨을 서슴없이 바쳐 혁명동지를 구원하는 등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끝없이 꽃펴났다.

하기에 이런 미덕이 만발하는 우리 사회를 두고 외국인들은 《조선은 아름다운 인간향기가 진동하는 사회》라고 격찬을 금치 못해하는것이다.

그러나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에 물젖어 혈육간에도 죽일내기를 하는 말세기적풍조가 만연되여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있다.

일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나라이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도 끔찍한 살인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지난 1월 어느날 일본 오까야마현에서는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칼로 찔러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 쌍둥이동생과 함께 살고있던 살인자는 이날 새벽 자기 집에서 아버지의 목과 가슴을 칼로 열번이상 찔렀다고 한다.

침실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방안에 들어간 동생이 칼로 아버지를 찌르고있던 형을 제지시켰지만 이미 아버지는 숨을 거둔 뒤였다.

그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며칠후 나가노현에서는 69살 난 남성이 쇠망치로 자기 아들의 머리를 여러번 내리쳐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더우기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낸것은 그가 버젓이 경찰에 찾아가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실토한것이다.

지난 11월 이시가와현의 어느 한 시에서는 손자가 할아버지를 목졸라죽인 사실이 공개되여 사회계의 경악을 자아냈다.

설사 혈육이라 할지라도 자기 리익과 배치될 때에는 자식이든 부모이든 눈 한번 깜짝 안하고 죽이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초보적인 인륜도덕마저 깡그리 사라져버린 일본의 엄연한 사회현실이다.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이 나라에서는 모성애마저 사멸되여가고있다.

후꾸오까현에서는 태여난지 2개월밖에 안되는 어린애가 울었다는 단 한가지 리유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였는가 하면 또 다른 현에서는 산모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그것도 출생직후에 살해하여 자동차안에 내버림으로써 사회적물의를 일으켰다.

사이다마현의 어느 한 경찰서에서는 한겨울에 태여난지 8개월밖에 안되는 자기 딸을 차디찬 위생실에 20시간동안이나 내버려 심한 동상을 입힌 어머니라는 녀성을 심문하였는데 그는 《전혀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저없이 발언하여 극도의 인간증오사상이 만연된 일본사회의 부패상을 여실히 드러내보였다.

이 나라에서는 아무런 리유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현상도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있다.

얼마전 일본 오사까부의 어느 한 길가에서 신문배달을 하던 녀성이 칼에 찔리워 심한 중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범죄자는 뜻밖에도 14살밖에 되지 않는 학생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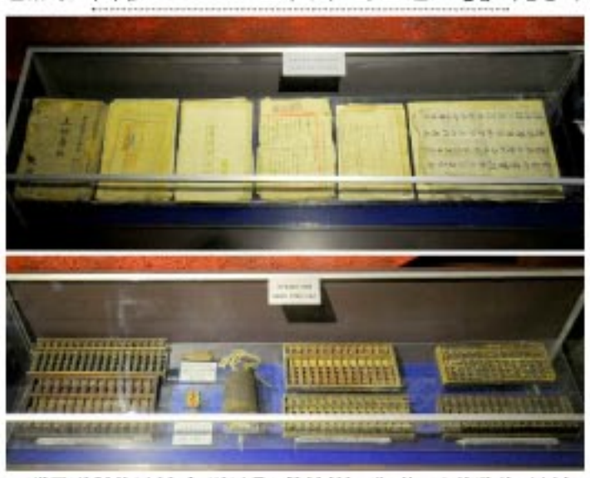
더우기 사람들을 놀라게 한것은 《스트레스가 쌓일대로 쌓여서 막 미칠 지경이였다. 사람을 죽이고싶었다. 때마침 그 녀성이 지나가길래 칼로 찔렀다. 그가 누구든 상관이 없다.》라고 자기의 범죄행위를 극구 정당화한것이였다.

바다물을 다 마셔보지 않고도 한방울이면 짠맛을 알수 있듯이 일부 공개된 사실을 통해서도 너 아니면 나라는 극도의 개인주의와 인간증오사상이 만연되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살인사건들이 끊길새없이 이어지는 자본주의사회의 암담한 현실을 보게 된다.

따뜻한 인간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사회주의가 인민대중의 락원이라면 인간증오사상이 만연된 자본주의는 인간생지옥, 악육강식의 사람 못살 세상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를 끝없이 사랑하는것이며 목숨처럼 귀중히 여기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계급적원쑤들이 농민들을 착취하는데 쓴 토지대장, 문서, 주산, 저울추들
—중앙계급교양관에서— 본사기자 찍음

저수지공사장에 서린 원한

지난 세기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다.

증산군 이암리에도 일제의 귀축같은 만행이 력력히 어려있다.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이암땅에는 주민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고장의 기름진 땅과 수산자원에 눈독을 들인 일제는 이암지구에 인민들을 략탈하는 기구를 내오고 여러곳에서 사람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얼마후 인구수가 부쩍 늘어났다.

일제놈들은 이곳에서 더 많은 쌀을 략탈할 목적밑에 저수지언제공사를 벌려놓았다. 놈들의 흉계를 알수 없었던 사람들은 이곳으로 찾아와 일자리를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수지언제공사장에 모여들었다.

그때 놈들은 공사를 하루빨리 끝내려고 조선사람들에게 하루에 15~18시간의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아무런 기계수단도 없이 순수 인력으로 땅을 파고 짐통으로 토량을 운반해야 하는 일은 그야말로 힘에 부치였다. 놈들은 채찍을 마구 휘두르며 조선사람들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었다.

그것도 모자라 교활한 일제놈들은 사람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하루일을 한 다음에는 그 값을 돈이 아니라 돈표로 주었다. 그러다보니 그시그시 목숨을 연명해가던 사람들은 죽지 못해 고역을 치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혹시나 하고 공사장을 떠나지 않았다.

공사가 마감단계에 들어서자 놈들은 생사람을 묻고 제방을 쌓으면 무너지지 않아 좋다고 하면서 무서운 흉계를 꾸미였다.

놈들은 사람들에게 잠시간도 주지 않고 죽음의 고역장으로 내몬것도 성차지 않아 몰래 음식에 환각제를 섞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수 없었다.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지칠대로 지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발판을 헛디디여 떨어지었다. 놈들은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생매장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하여 저수지언제공사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죽음을 당하였다.

나라없던 그 세월 우리 인민의 처지는 상가집 개보다도 못한 가련한 신세였다.

특파기자 오 철 훈

혁명적당들의 단결과 련대성강화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지금 국제정세는 매우 복잡다단하다.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려는 진보적인민들과 세계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공고화하려는 제국주의반동세력사이에 심각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현실은 혁명적당, 진보적정당들이 제국주의반동세력의 강권과 전횡, 침략과 주권침해행위를 짓부시고 자주권을 수호하며 세계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자주화를 실현하는것은 인류의 공통된 지향이며 력사적인 과제이다.

지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진행된 제20차 공산당, 로동당들의 국제회의는 세계무대에서 사회주의의 붉은 기치가 세차게 휘날리고있으며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다는것을 실증해주었다.

회의에서 여러 나라 당대표들은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을 이끌어나가는 조선로동당의 주동적인 노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로동당의 투쟁이 국제공산주의운동강화에 적극적인 기여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위업, 인류자주위업이 력사의 광풍을 뚫뚫이 이겨내고 용기백배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는것은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사상리론활동으로 세계 혁명적당, 진보적정당들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 당은 사회주의위업을 선도해나가는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존엄을 떨치고있으며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의 보루, 반제자주의 성새, 정의와 진리의 대변자로서 국제무대에서 높은 권위를 지니고있습니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여러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진것으로 하여 사회주의위업은 심각한 위기와 파절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게 되였다.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 당들은 수십년간 유지하여오던 령도적역할을 포기하고 종당에는 해산당하는 비극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78(1989)년 10월 26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꾸바신문 〈그란마〉 사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이 생명선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고귀한 지침을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라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나라가 분렬되고 세계제국주의와 직접 맞서고있는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혁명적원칙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적으로 추진시켜올수 있은것은 바로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왔기때문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수령을 중심으로 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확고히 실현하는것이라고, 당은 사상과 리념을 같이하고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함께 투쟁하는 혁명동지들의 집단이며 하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통일단결은 당의 생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시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매개 당은 자기 당의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통일단결을 실현하여야 하며 당안에 다른 사상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안에 이러저러한 이색적인 사상을 허용하면 당이 사상적으로 와해되고 조직적으로 사분오렬되게 된다고, 사상과 령도의 유일성이 확고히 보장될 때 당은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실현할수 있으며 자기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지침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담보하는 강력한 사상정신적무기로 되였다.

여러 나라 신문, 통신, 방송이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마다가스까르의 한 인사는 어느 한 석상에서 제국주의자들은 사회주의력량이 강화되는것을 두려워하고있다. 그들은 모든 선전수단을 다 동원하여 사회주의에 대한 비방중상을 악랄하게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계속 힘차게 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신것은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안겨준 가장 고귀한 지침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당시 제국주의자들은 공모결탁하여 인류의 자주위업에 악랄하게 도전해나서면서 반제자주력량을 각개격파하려고 발악적인 책동을 다하였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 특히 그 전위부대인 혁명적당들이 단결의 기치, 련대성의 기치를 높이 드는것은 절박한 시대적요구로 나섰다.

국제정세의 변화과정과 세계무대에서 감행되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예리하게 꿰뚫어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하는 나라 당들이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할 전투적기치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주체81(1992)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창건 47돐에 즈음하여 집필하신 론문 **《혁명적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단결하자!》**, 이것이 우리 시대 모든 인민들이 공동으로 들고나가야 할 구호이라고 하시면서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은 사회주의리념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계속하시여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켜나갈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평양선언이 나온것은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고 사회주의위업을 전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혁명적당들의 국제주의적단결과 련대성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혁명적당들은 높은 당과 낮은 당, 지시하는 당과 지시받는 당의 관계가 아니라 자주성과 정등에 기초하여 동지적관계를 맺을 때 참으로 공고한 국제주의적단결을 이룩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사회주의리념과 자주성이 혁명적당들의 단결과 련대성을 위한 기초라는것을 밝혀주심으로써 지난 시기 혁명적당들호상간에 나타났던 편향을 극복하고 혁명적단결과 련대성을 더욱 강화해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였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발표하시여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혁명적당, 진보적정당들이 자기 발전의 길로 줄기차게 나아가도록 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시였다.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불면불휴의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하는 나라 당들앞에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신것은 세계혁명과 인류자주위업에 쌓으신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본사기자 라 명 성

애국충정의 자욱을 새겨가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몸은 비록 이국땅에 있어도 조국과 민족을 위한 길에서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하며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어머니조국의 대지우에 애국충정의 자욱을 뚜렷이 새겨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화국의 성스러운 발전행로속에는 머나먼 이역땅에서 람홍색공화국기를 창공높이 휘날리며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조직의 본보기의 영예를 떨쳐온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뜨겁게 스며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의 기둥,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애국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친 총련의 1세들의 뒤를 이어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는 사회주의조국을 받들어가는 동포들은 수없이 많다.

잊을수 없는 사람

얼마전 총련에서 잡지 《종소리》 제75호가 발행되였다. 《종소리》는 총련의 우수한 시인들이 정기적으로 발행하고있는 시잡지로서 동포들의 정서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말없는 길동무로 되고있다.

이번 호에도 《하나된 내 땅의 첫 세대가 되고싶어》, 《승소리》 등 23편의 우수한 작품들이 실리였다.

하지만 잡지를 펼쳐들던 동포들은 어쩐지 허전한감을 금할수 없었다. 《종소리》의 첫호가 발행된이래 매번 빠짐없이 시를 두고하던 한 시인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기때문이다.

지난 5월 세상을 떠난 정화흠동포, 재일조선인운동의 초창기부터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수많은 시작품들을 내놓은 그는 생의 말년에 불치의 병으로 신고하면서도 창작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곁에서 보다못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몸이 불편하면 한두번쯤은 잡지에 두고 하는것을 미룰수 있지 않겠는가고 할 때마다 그는 자기는 바로 《종소리》때문에 살고있다고 말하군 하였다. 지난 봄 그의 집에 병문안갔던 동포들은 조국땅에 도래한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두고 가슴설레이며 그 격정을 시에 담기 위해 모지름쓰던 로시인의 모습을 잊지 못하고있다.

온 겨레의 심금을 울릴수 있는 시, 통일조국에서도 빛이 바래지 않을 참신한 작품을 하나라도 더 창작하겠다고 하면서 총련의 재능있는 시인은 이처럼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 그래서 동포들은 그를 더더욱 잊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지난 여름 총련 오사까조선고급학교와 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조국땅을 밟은 그들의 감회는 류달랐다.

조국에서의 하루하루는 말그대로 감동과 환희의 련속이였다. 골라보게 번모된 조국의 현실은 그들의 심장속에 애국의 피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단결되여있고 만리마속도로 전진해나가는 여기가 바로 내 조국이다.》, 《일본보수언론들의 끈질긴 악선전으로 귀가 멀 지경이였는데 제눈으로 조국의 현실을 보게 되니 정말 가슴이 후련하다.》, 《승리의 신심에 넘쳐 투쟁하고있는 조국인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것을 느끼였다. 정말 이번 조국방문을 통해 애국의 키가 또 한뼘 자랐다.》…

누구라 할것없이 조국인민들의 희망에 넘친 모습에서 무궁번영할 미래를 확신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을 토로하였다.

길지 않은 조국방문의 나날 신심과 용기를 가다듬은 동포학생들은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처럼 이역땅에서 애국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허 영 민

과거죄악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최근 남조선대법원이 일본의 미쯔비시중공업회사가 일제강점시기의 강제징용로동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정객들이 줄줄이 나서서 강경대응을 운운하며 비린청을 돋구어대고있다.

외상 고노는 담화라는것을 발표하여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선택안을 시야에 두고 강하게 대응할것이다.》고 뇌까렸다.

그런가 하면 자민당은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토의》한다는 명목밑에 외교부회와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등이 참가하는 합동회의를 소집하며 부산을 피워댔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주재하고있는 자국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느니, 말로만 해보는것은 대항조치가 못된다느니 하는따위의 망발들이 튀여나왔다. 특히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위원장 나까소네는 합동회의에서 《구체적인 대응책을 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고아댔다.

일본반동들은 지금 남조선에서 잇달으고있는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판결때문에 골머리를 앓고있다.

지난 10월말 남조선대법원이 신일본제철기업에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도 일본반동들은 발끈하여 그것은 남조선의 일방적력사관의 반영이라느니, 국제상식을 깨고 법의 틀을 깨려는 도전이라느니 하며 그 《부당성》을 선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력사를 외곡하고 과거죄악을 부정하는 도덕적저렬한들의 추태이다.

일본이 지난 시기 우리 민족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준 커다란 죄악을 안고있는 나라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알고있는 사실이다.

일제는 조선강점시기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개정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과 같은 악법들을 마구 조작하고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피하여갔다. 애당초 성별이나 나이같은것은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도서 《아이오이시력사》에는 《징용이 강제련행형식의 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에 조선인들속에서 도망치는 일이 계속 나타났다.》고 기록되여있다. 이것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끌어간 과거 일본의 죄행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려간 조선의 청장년들과 녀성들은 혈압한 작업환경속에서 마소와 같이 혹사당하였다. 너무 힘들어 허리를 펴거나 일손을 멈추면 감독들의 고함소리와 함께 방망이가 날아들군 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고 고역을 치르다가 고향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하고 이역땅에서 무주고혼이 되였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은 불구가 되거나 겨우 목숨만 건져가지고 돌아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어지러운 과거범죄에 대해 자인하고 성근하게 사죄할 대신 저들의 범죄사실을 부정하며 침략력사를 미화해보려고 후안무치하게 놀아대고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의 가혹성을 상징하는 조선인강제징용시설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버젓이 등록한 사실,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추도비에 검은 칠을 해놓고 일본어로 《거짓말》이라는 락서질을 해놓은 사실 등은 과거범죄인정이 곧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는것》이라는 인식이 골수에 박혀진 일본특유의 과렴치성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저들의 과거죄악을 꼬물만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질하는 일본반동들의 뻔뻔스러운 행태는 조선민족은 물론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일본의 과거범죄는 세월이 흘렀다고 하여 결코 력사의 흑막속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반인륜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이 과거죄악의 책임을 회피해보려고 아무리 발악해도 력사의 진실과 정의를 거스를수 없다.

림 원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망동집단

남조선신문이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14일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망동집단》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신문은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임기의 마지막순간까지 막말로 정치를 어지럽혔다고 비난하였다.

김성태가 지난 시기 《들개처럼 문재인정권과 맞서 싸우겠다.》고 하면서 《정부》가 하는 일을 무작정 헐뜯더니 지금에 와서는 《정부가 민주로총에 꼬리를 내렸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다고 신문은 단죄하였다.

신문은 리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김성태의 막말이 민중에 대한 악랄한 도전임을 알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전 《정권》시기 특대형부정부패행위들에 공모하고 최순실과 같은자들과 결탁하여 세금을 랑진한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이 민중의 복지를 한사코 가로막으면서 로동자들을 련악한 환경에로 내몰려고 한다고 신문은 까밝혔다.

신문은 더욱 심각한것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평화번영, 통일의 성과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것이라고 하면서 김성태가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무장해제당했다.》, 《몹쓸것이다.》고 악에 받친 헛소리를 해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1야당원내대표직을 차지하고 남북협력을 사사건건 방해한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반공화국모략에 열을 올리며 비난한것은 용납 못할 망동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주객이 전도된 막말로 정치를 어지럽히는 《자유한국당》은 하루빨리 해체되여야 할 망동집단이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원내대표가 바뀌여도 《자유한국당》은 김성태와 같은 물개습성이 체질화된자들이 모인 집단이기에 민중을 통박하는 망동을 계속할것이다.

민중은 이미 《자유한국당》을 악에받친 집단으로 락인하고 심판의 날만 벼르고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민심에 도전한다면 파멸적인 종말이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미국의 미군유지비분담금인상요구를 배격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1일 남조선각계가 미군유지비분담금을 인상시킬데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배격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사회진보련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를 비롯한 10여개 단체는 서울의 여러곳에서 미국의 부당한 미군유지비인상요구를 규탄하는 항의운동을 벌렸다.

미국대사관건물주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국의 요구는 저들의 리익만을 추구하는 횡포라고 단죄하였다.

그동안 유지비인상의 주요근거로 내세웠던 평택에로의 미군기지이전도 올해까지 사실상 마무리되기때문에 오히려 유지비는 대폭 삭감되여야 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전략자산의 전개비용을 남조선이 부담하라는 요구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미국이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조선반도에 전략자산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도 전개비용을 부담시키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이 전략자산전개비용부담을 요구하는것은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력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남조선에 부담시키고 나아가 합동군사연습을 언제든지 재개할 가능성도 념두에 두고있다는 의구심만 가지게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 국방연구원에 간 단체들은 미군유지비삭감을 요구하는 항의행동을 전개하였다.

민중당 성원들도 미국대사관전불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이 남조선주둔 미군유지비분담금을 2배로 인상시킬것을 남조선에 요구하고있는데 대하여 비난하면서 명확한 근거없이 파도하게 퍼주기식으로 일관된 미군유지비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뒤흔들리는 미국딸라주도의 국제금융체계

최근 국제무대에서 미국딸라의 지배권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유럽에서 그 경향이 짙어가고있다.

벌가리아의 어느 한 인터네트신문이 전한데 의하면 유럽동맹위원회가 유로사용범위를 확대하여 딸라의 지배적역할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안을 모색하고있다. 계획안에는 에네르기, 원료, 비행기생산 및 제작을 비롯한 전략적인 분야들에서 유로사용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문제들이 포함되여있다고 한다.

유럽에서의 딸라배척움직임은 많은것을 시사해준다.

유럽나라들은 대다수가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국들이다. 유럽은 지난 시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미국에 크게 의존하면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시기에 와서 유럽의 태도가 변하고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빠리협정에서의 탈퇴와 유럽산 제품들에 대한 일방적인 추가관세부과, 파도한 군사비요구 등 미국의 독선적행동들이 유럽의 불만을 자아냈던것이다. 이로부터 유럽나라들은 지역의 독자성을 주장해나서고있다. 딸라를 배격하고 유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것도 그때문이다.

유럽동맹위원회는 성원국들이 다른 나라와 에네르기계약을 체결할 때 결제화폐를 유로로 하겠다는것을 담보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유럽동맹의 에네르기수입의 80%이상이 딸라로 결제되고있는 상태이다. 이로하여 유럽은 미국이 지배하는 딸라주도의 금융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어떤들은 유럽이 독자성을 보장하는데서 딸라를 배격하고 유로의 사용범위를 확대하는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된다고 평하고있다.

로씨야도 자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딸라배척에 나섰다.

보도에 의하면 현재 로씨야는 루블과 기타 화폐로 보다 많은 무역거래를 진행할것을 계획하고있다. 또한 딸라를 사용하지 않는 수출업체들에는 세금징수시 우대조치를 취하는 문제도 예견하고있다. 원유무역결제에서 딸라를 포기할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다.

로씨야는 딸라의존증을 떨어버리는것을 미국의 제재를 무력화시킬수 있는 방책으로 보고있다.

미국국채소유량을 대폭 줄이는것과 함께 금보유량을 늘이고있다. 분석가들은 로씨야가 미국과의 관계가 계속 긴장한 속에서 금을 대량 사들이는 목적이 딸라로 인한 위험을 줄이자는데 있다고 보고있다.

지난 6일 로씨야대통령 푸찐은 어느 한 회의에서 유라시아경제동맹에 현대적인 금융기술을 리용한 공동의 결제하부구조를 창설함에 대한 문제를 제의하면서 그것이 유라시아경제동맹 성원국들이 딸라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경제적자주권을 높일수 있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외무상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딸라를 악용하는것은 그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다. 더욱더 많은 나라들지어 미국의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들까지도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딸라를 멀리하고 민족화폐리용의 전지에서 보다 민첩하고 보다 책임성있는 동반자들에게 의거할것이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신문은 서방의 새로운 제재가 로씨야의 금융체계를 목표로 한다면 딸라배척이 그 타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여러 나라에서 민족화폐를 통한 무역이 확대되고있다.

중국과 로씨야는 이미 무역거래에서 항국화폐리용을 장려하고있다. 네데를란드상업은행의 한 경제학자는 루블과 인민폐를 리용한 로중사이의 무역이 4년내에 거의 2배로 장성하였으며 지금도 계속 확대되고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위르끼예와 루블을 결제화폐로 하여 《C-400》고사로케트종합체를 판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라시아경제동맹 성원국 중앙은행들이 통합적인 금융기구형성을 위한 문제를 연구하고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여러 나라에서의 이러한 딸라배척시도로 하여 수십년간 유지되여온 미국딸라주도의 국제금융체계가 뒤흔들리고있다.

본사기자 리 철 혁

도마우에 오른 미싸일철페조약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둘러싸고 로씨야와 나토성원국들사이의 대립과 마찰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지난 4일 나토성원국 외무상회의에 참가한 미국무장관은 로씨야가 새로운 중거리미싸일을 개발하고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로씨야의 행동은 자국을 조약탈퇴에로 떠밀고있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로씨야가 60일내에 조약을 리행하지 않으면 자국이 조약에서 탈퇴할것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회의에 참가한 다른 외무상들도 로씨야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위반함으로써 국제적인 무기통제체계를 파괴하였다, 조약의 유지여부는 전적으로 로씨야에 달려있다고 말하였다.

로씨야는 이것을 자국에 책임을 뒤집어씌우기 위한 어리석은 짓으로 일축하였다.

5일 로씨야대통령 푸찐은 미국이 조약에서 탈퇴하고 금지된 미싸일개발에 착수하면 로씨야도 그렇게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계속하여 미국이 먼저 조약탈퇴를 마음먹었고 지금은 구실을 찾는중이다, 미국이 그렇게 나오면 그에 대한 로씨야의 대응도 뚜렷할것이다고 언명하였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나토성원국들은 로씨야가 개발하고있는 중거리미싸일이 불의에 유럽을 핵공격할수 있는 무기라고 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로씨야의 행동이 자국과 동맹국들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있다고 여론전을 펴고있다.

로씨야는 그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있으며 미국의 언동이 조약에서 탈퇴하려는 저들의 목적을 은폐시키고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반박하고있다. 로씨야외무성 대변인은 자국이 조약을 엄격히 준수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운명은 도마우에 올랐다.

만일 조약이 파기된다면 로미사이에 새로운 핵군비경쟁이 일어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나아가서 2021년에 만료되는 전략무기축감조약의 연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곧 로씨야와 미국의 공격용핵무기배비가 통제밖에 놓이고 유럽전체가 핵전쟁마당으로 될수 있는 위험성이 증대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이로부터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고수해야 할뿐아니라 군축에 관한 협정들을 더 많이 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울려나오고있다.

분석가들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을 유지하는것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로씨야와 나토성원국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하고있다.

로씨야는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비난전에 떠여달리지 않는 조건에서 대화를 진행할 용의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미국 등 나토성원국들은 대화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않고있다. 로씨야가 저들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일것만을 요구하고있다. 한편 로씨야가 조약유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때문에 조약파기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돌리고있다. 나토사무총장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 준비되여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하였다.

현재 어느 한쪽에서도 양보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갈수록 더욱 첨예해지는 로씨야와 나토성원국들사이의 관계를 보면서 많은 나라들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운명을 두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본사기자 손 소 연

로씨야 수리아주민지에서 무력을 철수시킬것을 미국에 요구

로씨야외무성이 최근 공보를 발표하여 수리아의 애트란프주민지에서 무력을 철수시킬것을 미국에 요구하였다.

공보는 수리아남부의 애트란프주민지에 있는 루크반피난민수용소의 상황이 악화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지역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미국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애트란프주민지에서 무력을 시급히 철수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수리아에 넘겨주어 수리아정부가 자기 공민들을 돌볼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공보는 밝혔다.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악선전을 규탄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총비서가 최근 성명을 발표하여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악선전을 규탄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대통령을 암살할데 대한 이스라엘정착민들의 선동은 팔레스티나인들과 그들의 합법적인 요구를 반대하는 이스라엘당국의 체계적인 선동공세의 일환이라고 하면서 그로 하여 초래될 후과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무모한 정책과 행위들을 즉시 중지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하였다.

수력발전소 조업

캄보쟈의 동북부지역에 대규모수력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여 17일 조업하였다.

40만kW의 발전능력을 가진 발전소의 언제높이는 56.5m이고 부지면적은 3만 6 000㎢이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수도 프놈펜, 스퉁트렝주와 그 주변지역들에 공급된다고 한다.

조업식에서 이 나라 수상 훈 센은 발전소가 에네르기안전을 보장하고 빈궁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무장장비증강책동

일본반동들이 무장장비증강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18일 일본당국은 105대의 《F-35》전투기를 새로 구입하는것을 승인하였다.

그중 단거리리륙 및 수직착륙이 가능한 《F-35B》전투기는 42대, 《F-35A》전투기는 63대라고 한다.

《F-35B》전투기들은 항공모함으로 개조되는 해상《자위대》호위함 《이즈모》호에 탑재될것으로 계획되여있다.

【조선중앙통신】

ㄱ-1812009(정기간행물등록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